

‘창조적 글쓰기’¹⁾가 개인 및 시대에 미치는 치유적 작용 - ‘어둠의 남자(Vampire)’ 상징을 중심으로 -

김계희* · 김기원** · 한은선***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만남’과 ‘설레임’에서 비롯되었다. 본 논문의 저자는 2013년 2월 중순 경 만나 6월 초에 예정되어있던 원내 학술발표²⁾주제에 대해 상의하였다. “현금(現金) 대중들의 강한 호응을 얻으며 많은 관객들의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는 개봉관 영화들 중에 어린 시절 들었던 옛날이야기들과 유사한 내용의 영화들이 유난히 많이 눈에 띈다. 그런 현상이 신기하다.” 라는 대화를 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영화 ‘드라큘라’³⁾ ‘트와일라잇 시리즈’⁴⁾ ‘웜바디스(Warm bodies)’⁵⁾에 자연스럽게 주제가 흘러가게 되고, 저자 공히 이 영화들을 모두 보았으며 또한 매우 인상 깊게 보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학술발표의 주제를 이와 관련하여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순간, 가슴 두근거리는 설레임과 두려움과 망설임이 동시에 느껴졌으

접수일 : 2013년 3월 26일 / 심사완료 : 2013년 5월 4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6월 3일

*용인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국제분석심리학회(IAAP) 공인 융학과 정신분석가

**용인정신병원, 정신과 전공의 3년차

***용인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1) ‘창조적 글쓰기(creative writing)’ : ‘환상적 창작’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다. 용, C.G. (한 국웅연구원 C.G.용 저작 번역 위원회 역)(2004) : 용기본저작집 9권, 《인간과 문화》, 솔, 서울, pp158-179.

2) 용인정신병원에서 2013년 6월 4일에 <환상적 창작(예술적 창조)이 시대정신에 미치는 치유적 작용> 이라는 제목으로 정신의학 학술발표대담회PGR(Psychiatric Grand Round)에서 강연발표.

3) 본 논문 제 3장 참고.

4) 본 논문 제 3장 참고.

5) 본 논문 제 3장 참고.

며, 이렇게 하여⁶⁾ 학술발표의 주제가 결정되었다. 학술발표를 준비하고 강연발표하고 청중들과 토론하는 과정 내내 설레임과 열정이 저자와 함께 하였으며, 학술발표집담회에 참석한 청중들 역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강한 감정반응을 보이며 시간이 지나도록 열띤 토론을 한 후 학술발표를 마치게 되었다. 구연된 발표내용을 그냥 덮어버리려 했으나 웬지 모를 아쉬움이 남고 그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던 중에, 청중들 중 한 분의 조언과 권고에 따라, 논문으로 완성하여 투고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저자가 만나 설레임과 열정을 공유하며 설레임과 열정이 이끄는 곳으로 동반하던 길 위에서 시도하게 된 하나의 작은 '창조적 글쓰기'이다.

본 논문의 제 1장에서는 '창조적 글쓰기'로 이어진 31세 여성의 꿈을 소개하고 그 꿈 이전과 이후의 여성 개인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조명해 보았으며, 제 2장에서는 개인의 무의식(꿈, 환상)에 나타나거나 체험되는 '창조적 충동'의 귀결(실현 방향) 및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개인에서 보이는 '창조적 충동', '내향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인격의 창조적 변환을 가져오게 되기도 하며, '환상적 창작' 혹은 '외향화' 과정을 통해 '작품'으로 출산되기도 함을 볼 수 있었다. 때로는 두 방향의 귀결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기도 하였다. 후일 처녀작 '트와일라잇'이라는 작품으로 완성됨으로써 '작가'로서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한, 스테프니 메이어(Stephenie Meyer)의 '원형적 꿈'을 분석심리학적으로 고찰하고 그 해석을 시도해보았다. 제 3장에서는 개인의 꿈들과 영화 '드라큘라' '트와일라잇 시리즈' '웬바디스' 등을 조명해 보면서, 개인의 꿈들과 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소설, 영화 등의 일부 예술작품에서 '어둠의 남자(뱀파이어, 좀비)'의 모습(像)에 변환이 있으며, 인간인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이 결실을 맺기도 하며, 또한 어둠의 남자(뱀파이어)에 대한 의식의 자아의 태도와 상호 관계양상에 있어서도 매우 인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현금의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변화는 그 개인 및 이 시대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개인 및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숙고해 보았다. 인간의 마음 심층(深層)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창조적 충동'은 '개인의 인격의 창조적 변환'

6) 그런 이유로, 그림에도 불구하고.

으로 실현되거나 예술적 창조를 통해 '작품'으로 출산되기도 하며 시대의 인연과 닿을 경우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게 됨으로써, 개인과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치유와 구원의 작용을 가져오게 되기도 함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창조적 충동'의 긍정적이고 치유적인 측면에 대해 주로 조명해 보았으며, '창조적 충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귀결 및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은 후일 기회가 되면 새로운 논문을 통해 다시 다루고자 한다.

중심 단어 : 창조적 충동 · 창조적 글쓰기 · 인격의 창조적 변환 · 어둠의 남자 · 치유 · 구원.

제 1장 : '창조적 글쓰기'⁷⁾로 이어진 31세 여성의 꿈과 삶에 대한 조명⁸⁾⁹⁾

다음은 31세의 한 여성이¹⁰⁾(이후 S로 약칭) 2003년 6월 2일 새벽에 꾸는 꿈의 내용이다.

숲 속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왕래가 없는 둥근 풀밭에 밝은 햇빛이 쏟아지고 있으며 두 명의 남녀가 대화에 몰두하고 있다. 남자는 몸에서 빛이 반짝이는 매우 아름답고 매혹적인 청년이며 뱀파이어(vampire)이고, 여자는 10대의 평범한 소녀이다.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서로를 매우 갈망하고 있음을 느끼며 그것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뱀파이어 청년은, 자신이 얼마나 소녀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동시에 자신이 소녀의 피의 냄새의 특별히 끌리고 있으며 당장이라도 소녀를 덮쳐 피를 마시고 싶은 욕구를 참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소녀에게 설명하고자 애쓰고 있다.¹¹⁾¹²⁾

7) Creative writing, 환상적 창작.

8) Marc Shapiro(2009) : *Stephenie Meyer, The Unauthorized Biography of the Creator of the Twilight Saga*, St. Martin's Griffin, New York.

9) Chas Newkey-Burden(2010) : *Stephenie Meyer, queen of twilight, The Biography*, John Blake Publishing Ltd, London

10) 스테프니 메이어(Stephenie Meyer) : 이후 S라고 약칭.

11) Marc Shapiro(2009) : 앞의 책, pp42-44.

12) Chas Newkey-Burden(2010) : *Stephenie Meyer, queen of twilight, The Biography*, John Blake Publishing Ltd, London, preface. ix-x.

이 꿈을 꾸고 S는 새벽4시에 잠에서 깨어났으며, 꿈의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고 인상 깊어,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꿈 속의 장면으로 되돌아가, 자신의 꿈의 관찰자가 되어, 꿈의 장면을 이렇게 저렇게 다시 보고 느끼며 한참 동안을 주목하였다. S는 후일 이 순간에 대해 “나는 아직도 꿈 속의 그 장면이 생생하게 보인다. 그 꿈은 정말 이상하고 특별했으며, 나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것처럼 생생하고 인상 깊은 꿈을 꾸 적이 없다.”¹³⁾라고 회상하였다. 새벽에 눈을 뜨면 기억이 나지만 해가 뜨고 일과가 시작되면 잊혀지고 사라져버렸던 예전의 꿈들과는 다르게 이 꿈의 장면은 그녀에게 깊이 각인되어 잊혀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책장을 덮고 내려놓기를 결코 원치 않는 큰 책(a great book)을 읽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¹⁴⁾ 해가 뜨고 일상이 시작되자 S는 꿈을 일단 접어두고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돕고 세 아이를 수영레슨에 보낼 준비를 하며 일상의 허드렛일과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꿈의 장면이 계속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녀를 놓아주지 않자 남편과 세 아이가 아침식사를 하는 동안 컴퓨터를 켜고 꿈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햇빛 아래에 드러난 그(뱀파이어 청년)의 모습에 나는 큰 충격을 느꼈다...” 꿈의 내용을 글로 옮겨 적기 시작하면서 S는 적혀진 글(문장) 속에서 어떤 잠재된 가능성과 힘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것에 깊은 인상과 압도되는 충격을 느꼈다.¹⁵⁾ 글 속에 잠재된 가능성과 힘(에너지)이 있었으며, S는 강렬한 감정 상태로, 압도되는 감정의 힘으로 이를 체험하였다. 아이들을 차에 태워 수영 레슨에 데려다 주고 일상의 의무와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단 한 순간도 새벽의 꿈의 내용, ‘영원히 죽지 않는 뱀파이어 청년과 인간(mortal) 소녀와의 만남과 사랑’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영 레슨이 끝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아이들에게 점심을 차려준 후 S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으며, 작은 아이가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자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은 컴퓨터 자판 위에 올려놓았다. S는 후일 “나의 한 부분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매우 당황하고 놀라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 해야만 했으며, 내 마음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꿈 속의 모든 장면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13) *Courier-Mail* 인터뷰에서.

14) *Phoenix New Times* 기자회견에서.

15) S의 꿈은 살아 숨쉬는 글(문장)이 되어 후일 그녀의 첫 작품으로 세상에 발표된 판타지 소설 ‘트와일라잇’의 제13장이 되었다.

잊혀지기 전에 기록해두어야만 했다.”¹⁶⁾라고 회상하였다. 컴퓨터의 스크린을 마주하며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행동과 시도에 대해 약간의 망설임이 일기도 하였으나, S의 손가락은 이미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으며, 빈 화면은 글자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열 페이지가 채워지고, S는 그것에 사로잡히고 몰두하게 되었다. “꿈을 글로 적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완전히 그것(글쓰기)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갑자기 나는 그것을 발견하였으며 갑자기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 전에는 뱀파이어에 대한 꿈을 한 번도 꿈 적이 없었으며 뱀파이어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뱀파이어와 조우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뱀파이어와의 동행을 계속해야만 했을 뿐이다.”

꿈을 글로 옮겨 적으며 S는 ‘내가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꿈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그 답을 찾아내야만 했다. 꿈 속의 장면에 집중하며 꿈 속의 연인들에게 그 후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에 대해 몰두하고 정관(靜觀)¹⁷⁾하게 되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이 글을 읽게 되는 사람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글을 비밀스럽게 써내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큰 비밀을 간직한 채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일상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의 아이들을 위해 시간 내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내가 해야만 하는 것(글쓰기) 또한 포기할 수 없었어요.”¹⁸⁾라고 S는 후일 회고하였다. 이렇게 몇 주가 흘러가면서 어느새 한 편의 소설의 모습으로 완성되어가고 있는 자신의 꿈 이야기, ‘뱀파이어 청년과 한 인간 소녀의 사랑 이야기’에 점점 더 사로잡히고 몰두하게 됨에 따라, S는 엄마를 찾는 아이들의 요구들을 포함한 세속적인 일상의 것들에 대해 점차 참을성이 없어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수영레슨에 동행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과제를 해나가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그녀가 쓰고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어디로 도달하게 될지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생각들과 영감(靈感)들이 그녀에게 올 때면 그 즉시 메모를 해두었다가, 일상 중에 생기는 모든 기회와 틈을 훑쳐내어, 컴퓨터

16) YouTube video 인터뷰에서.

17) 명상

18) Collider와의 인터뷰에서.

앞에 앉아 글을 써내려갔다. 생각이 그녀에게 올 때 즉시 그것을 적어두지 않으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는 매우 절박한 것이었다. S가 글쓰기를 시작한 초기에는 헤드폰을 걸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생각들을 인도하고 생각들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 모든 자유 시간을 낮이나 밤이나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자 남편이 조금씩 화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S는 남편에게조차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비밀로 하였으며, 왜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남편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녀의 비밀은 결혼 생활에 긴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남편이 나에게 ‘당신은 잠도 자지 않는다! 당신은 나에게 말도 걸지 않는다! 나는 당신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없다!’ 라고 소리 지르며 이성을 잃고 화를 낼 때가 종종 있었다.”¹⁹⁾라고 S는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였다. “내가 항상 컴퓨터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남편은 화를 내기도 하고 신기해하고 어리둥절해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편에게 ‘뱀파이어 청년과 한 소녀의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을 적고 이야기로 쓰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²⁰⁾ S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그녀 자신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그 꿈을 꾸기 전까지 S는 뱀파이어 이야기나 신화 등에 대해 문외한이었으며 뱀파이어는 그녀에게 너무도 낯선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 꿈을 꾸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뱀파이어’를 소재로 한 영화인 ‘실종된 소년들(*The Lost Boys*)’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영화는 선혈이 낭자하고 잔인하고 난폭하였으며, 소녀의 감수성을 가진 그녀에게는 너무 성적인 내용들이었다. S는 자신의 글쓰기를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간직하겠다고 다시 마음을 굳혔다.

글쓰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속도가 느린 날은 하루 1~2 페이지, 속도가 빠른 날은 하루에 한 챕터를 끝내기도 하였다. S가 그것을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든 원고의 두께는 점점 더 높이 쌓여갔으며, 잠을 거의 못자거나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져갔다. 쌓이는 원고에 비하면 그것이 S에게는 작은 희생 정도로 느껴졌지만 그러나 스스로 글쓰기에 한계를 정해, 두 눈이 흐릿해지거나 머릿속이 몽롱해질 때면 내키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자신을 몸을 끌고 침대

19) *New York Times* 인터뷰에서.

20) *Courier-Mail* 인터뷰에서.

속으로 들어갔다. 잠자리에 든 후에도,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된 막내 아이가 깨어 울곤 하여 또다시 잠을 깨곤 하였으며, 이 때 그녀의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곤 하였는데 그러면 그녀는 곧바로 다시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가 컴퓨터 앞에 앉곤 하였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자 막내 아이를 보는 데 문제가 생기면 어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며 그래서 S는 펜과 공책을 침대 머리맡에 가져다 두고 한밤중이라도 깨어나면 머리에 떠오른 생각들을 즉시 메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글을 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²¹⁾ “제일 마지막 줄을 쓸 때 까지도 나의 글이 출판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²²⁾라고 S는 회상한다.

위의 이야기는 소설 ‘트와일라잇’ 시리즈의 작가 스테프니 메이어(Stephenie Meyer)의 실화이다. ‘트와일라잇’ 시리즈는 출판 4년 만에 7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영화로도 제작되어 전 세계 개봉관에서 상영되었던 ‘벵파이어 청년과 한 소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다. 스테프니는 1973년 성탄절야에 미국 코네티컷주 소도시에서 전통을 중시하고 보수적이며 매우 경건한 분위기²³⁾의 집안의 3남 3녀의 둘째로 태어났다. 수줍음이 많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공부를 좋아하는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서의 10대를 보냈으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의 기저귀를 갈고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나에게는 어릴 때 부터 모성적 본능이 충만해 있었던 것 같다. 심지어는 마치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염려하는 것처럼 나의 어린 남동생들에 관한 악몽을 자주 꾸곤 하였다.”²⁴⁾ “나의 부모님은 훌륭한 부모님이셨으며 나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회상하였다.²⁵⁾ 스테프니의 부모는 아이들이 야외(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가족들 모두 캠핑카로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다. 어릴 때부터 상상력이 풍부했던 스테프니는 가족들과 캠핑카로 여행을 할 때면 자신의 마

21) *Courier-Mail* 인터뷰에서.

22) www.motleyvision.org 인터뷰에서.

23) 모르몬교도로서, 교회에 규칙적으로 참석하고, 모르몬교의 성서들을 공부하며, 정해진 많은 규율들을 지키며 살게 된다.

24) *Phoenix New Times* 인터뷰에서.

25) *CBS Sunday Morning television* 인터뷰에서.

음 속에서 솟아오르는 상상을 이야기로 엮어 가족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외모를 꾸미고 남자친구 사귀는 것에 관심이 많던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스테프니는 책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으며 크고 두꺼운 책들을 매우 좋아하고 매우 많은 책들을 탐독하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하고 조용한 학생이었다. 문자로 씌여진 말(written word)에 대한 열정은 특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스테프니의 아버지²⁶⁾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이야기책을 읽어주셨다. “아버지는 항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를 때 책 읽어주던 것을 멈추셨다. 나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서 너무 조바심이 났으며, 몰래 침대에서 내려와 책을 가져다가 계속 읽곤 하였다.”²⁷⁾ 스테프니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많은 시간을 혼자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별로 개의치 않았으며, 후일 “스테프니는 자신만의 작은 세계 속에 있었다. 딸아이가 좋은 책에 몰두하게 되면 그 세계에 빠져들어 혼자서도 완벽하게 행복해 했다.”라고 회상하였다. 스테프니는 “고등학교 시절동안 아빠와 책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화하였다. 아버지는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알고 계셨고 나는 아버지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이 아빠와 내가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었으며 아빠와 나를 친밀하게 해주었다.”라고 회상하였다.²⁸⁾ 책을 매우 좋아하는 스테프니의 성향과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엄격한²⁹⁾ 성장환경으로 인해 스테프니는 사춘기 소녀들의 통과의례라고 부를 수 있는 발달과정이란 측면에서 매우 더딘 편이었다. 스테프니는 18세³⁰⁾경에 한 소년에게 진지하게 빠져있었던 적이 있으며, 첫 남자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소년과 손을 잡는 것조차도 그녀에게는 너무 수줍고 쉽지 않아서 더 이상 관계가 진전되지 않았다.³¹⁾ 대학에 진학하여 영문학을 전공하였다. 자신이 영문학을 전공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창조적인 성향들을 다음 단계로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한 계속되는 두려

26) A financial planner(재정-금융 계획자)

27) *Paris Match* 인터뷰에서.

28) 2008년 www.sheknows.com 인터뷰에서.

29) 스테프니는 모르몬교의 성서인 *The Book of Alma*를 애독하였으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 만들어진 지침들과 규율들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였다. 스테프니는 자신이 ‘착한(좋은) 아이’였으며, 그녀가 사귀는 친구는 모두 ‘착한(좋은) 아이들’이었다고 회상하였다. 또한 스테프니는 음악을 좋아했는데, 부모의 사전 검열을 통과하여 허락된 음악만을 들을 수 있었다.

30) 만 16세

31) *School Library Journal* 인터뷰에서.

음 때문에, 안전한 것을 택한 것임을, 후일 고백하고 인정하였다. “나는 대학시절 내내 ‘창조적 글쓰기’ 수업들로부터 피해 다녔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스테파니는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대학시절 처음 2년 동안 그녀는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한 학생이었으며 좋은 학점을 유지하였고, 미술반에 참석하여 그림을 그리고, 하드-락 음악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열리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는데, 자신과 같이 모로코를 믿는 포래들조차도 정치, 문화, 그 밖의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음악 등에 대해 다른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음악에 즐거움을 느끼고 특히 특정 락(rock) 음악의 싸운드에 매료되었는데, 가사와 리듬과 분위기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것을 듣고 있는 그녀를 다른 세계로 데려가곤 하였다. R-등급³²⁾의 영화들과 마주할 때면 그녀는 아직 순진한 어린아이였으며, 성적인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책들을 마주 할 때면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검열관이 되었다. 앤 라이스(Anne Rice)³³⁾의 소설도 두어 권 읽게 되었다.³⁴⁾ 스테파니는 음악과 책에서, 어린아이가 한 발자국 씩 걸음을 내딛는 것과는 같은 새로운 시도와 성장을 해나가고 있었으며, 현재의 남편이 된 크리스티앙(Christiaan)을 만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데이트를 시작³⁵⁾하게 되었다. 둘의 사랑이 깊어져 대학교 재학 중³⁶⁾ 결혼하게 되었다. 스테파니는 결혼을 결정한 후 매우 행복해 했는데, 결혼이 자신의 인생의 합리적인 다음 단계이며, 또한 결혼이 자신의 내면에서 불안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창조적 충동의 불길을 틀어막아 진정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스테파니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웠으며,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내의 역할로 들어서게 되었다. 남편 크리스티앙은 회계감사관의 직업을 가지게 되고 스테파니는 가계를 돕기 위해 지역 부동산 중개인을 위한 접수계원이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다. 임신을 하고 유산의 공포와 고비를 넘긴 후 첫 아이를

32) 준성인 영화(17세 이하라도 성인과 동반이면 관람가).

33) 앤 라이스(Anne Rice) : 1941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 작가. 1976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를 처녀작으로 출판하면서 본격적인 저술 작업을 시작하였다.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는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며, 영화배우 탐 크루즈와 브래트 피트가 뱀파이어로 분했다.

34) 후일 그것을 떠올리고 인정하게 되었다.

35) 대학시절 3학년 겨울방학 무렵.

36) 대학시절 4학년 중반 무렵.

출산하게 되었으며, 훌륭한 아내이자 훌륭한 엄마가 되겠다는 새로운 방향의 야심을 가지게 되었다. 직장을 갖는 것을 포기하고 공식적으로 전업 엄마가 되었다. 9년이 훌쩍 흘러갔으며 스테프니는 남편인 크리스티앙을 자신의 영혼의 동반자라고 자주 말하며, 남편과 아이들과 가족과 친구들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단순한 삶에 꽤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그녀가 30살이 되던 2002년까지는 스테프니의 삶은 괜찮았다. 그녀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넘어져 팔에 심한 골절상을 입게 되었으며, 5주 후에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크론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것은, 평범하게 별 일 없이 인생이 많이 흘러가버렸으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아졌다는 것이다. 스테프니는 우울증이라고 부를만한 상태를 겪게 되었으며, 남편의 병을 걱정하게 되고, 그녀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끊임없는 빼앗아가는 세 아이의 양육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2003년 6월 2일 새벽, 31세의 스테프니가 그 꿈³⁷⁾을 꿀 무렵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희망도 없이 ‘좀비처럼’ 지쳐있었다고 회상한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하여 잊혀지지 않았으며, 그 꿈을 글로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영문학을 전공은 했지만, 그 꿈을 꾸기 전까지는 글을 써 본 경험이 없는³⁸⁾ 그녀는, 책으로 낼 계획이나 어떤 이야기의 구조 등에 대한 계획 없이, 단지 쓰지 않을 수 없어서, 그녀 자신만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단숨에 그녀의 꿈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으며, 3개월 만에, 후일 ‘트와일라잇’이라는 첫 작품이 될 내용의 초고가 쓰여지게 되었다. 쓰고 보니 그 분량이 매우 많아 책이 되겠다는 생각이 그녀에게 문득 들었으며, 망설이던 차에, 사연을 알게 된 언니 에밀리³⁹⁾의 권유로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책으로 출판된 그녀의 꿈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그녀는 이제까지 어둠 속에 묻어 두었던 자신 안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 실현하게 되었다. 스테프니는 그 후로 ‘창조적 글쓰기’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으며 지금은 여러 편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뮤직비디오의 감독이기도 하다. ‘트와일라잇(Twilight)’

37) 본 논문 3쪽 하단.

38) 스테프니는 그 꿈을 꾸기 전 까지 자신 안에 잠재하고 있는 창조적 충동과 불길을 두려워하여 억압하고 피해왔으며, 대학시절에도 글쓰기(creative writing) 수업을 피해다녔다고 회상하였다.

39) 스테프니는 어린시절부터 그녀의 언니과 특히 가깝게 지내왔다.

에 이어서 출판된 그녀의 작품들인 '뉴문(New moon)' '이크립스(Eclipse)' '브레이킹 던(Breaking dawn)' 모두 처녀작인 '트와일라잇'에서 그 만남과 사랑이 시작된 '뱀파이어 청년'과 인간 소녀가 그 후 사랑이 깊어져가며 숲한 고난과 생사를 넘나드는 모진 시련을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에 열거한 스테프니의 모든 작품은 영화 제작자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스테프니는 영화 제작자 및 감독들과 만나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며, 그녀를 만나기를 원하는 수많은 팬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장(場)을 꾸준히 가지고 있다. 스테프니는, 삶의 장(場)과 인간관계가 자신과 가족들과 소수의 지인에 국한되어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산고(産苦)와 진통 끝에 태어난 자신의 작품을 통해, 그녀의 작품에 끌리고 그녀의 삶의 모습에 끌려 그녀에게 다가오는 세상 사람들과 기꺼이 만나 대화하고 있으며, 책 판매와 영화 상영으로 그녀에게 들어오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고 있다. 꾸준한 창작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스테프니는 세 아이의 양육에 정성을 쏟고 있으며, 일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휴식의 시간을 가지며, 늘 그래왔듯이 교회에 간다. 스테프니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쓴 책들로 인해 갑자기 유명해져 나는 계속 충격을 받고 있다. 나는 단지 그 날의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충격적으로 인상 깊어, 꿈을 내용을 적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나 자신만을 위해 나 혼자만 읽고 간직할 마음으로 꿈의 내용을 상세히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을 뿐이다.” “나는 나의 성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내가 계속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지금의 이 성공이 매우 즐겁고 기쁘며, 이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은 향유하고 싶다.” “그 무엇보다도 ‘엄마’로서의 내가 가장 중요하며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했으므로, 내가 ‘작가’가 되었다는 것이 내 삶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작가’가 된 후의 나의 변화는 여행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과 자유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 정도이다.” “나는 나의 세 아이를 사랑하며 아이들은 내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어떤 특별한 것, 나 자신이 되는 나의 길이 필요했다. 내 삶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듯 허전한 마음이 들었다. 내 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창조성이 있었으며,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밖으로 분출되어 진 것 같다. 바로 나 자신이었던 중요한 어떤 것

을 가지게 된 것은 구원이었다. 나는 항상 작가(storyteller)였다. 단지 내가 너무 수줍음이 많아 이제껏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 뿐이다.”⁴⁰⁾

제 2장 : 개인의 무의식(꿈, 환상)에 나타나거나 체험되는 ‘창조적 충동’의 의미 및 귀결(실현 방향) 대한 고찰

본 논문에서 저자는 ‘창조적 충동’이라는 용어를 ‘창조’를 일어나게 하는 충동력(힘, 에너지)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창조적 충동’에 의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창조’는, ‘내향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안으로 일어나는 ‘인격의 창조적 변환’으로 실현될 수도 있으며, ‘환상적 창작’ 혹은 ‘외향화’ 과정을 통해 개인의 밖으로 일어나는 예술적 창조인 ‘작품’의 출산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때로는 내향과 외향, 양쪽 방향으로의 실현이 동시에 함께 일어날 수도 있다.

‘창조적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은 개인에게 어떻게 체험되는 것일까? 개인에서 보이는 ‘창조적 충동’은, 그것이 개인에게 처음 체험되고 개인에게 그 의미를 드러내기 전에는, ‘영의 가난함(poor in spirit)’이나 ‘그리움’과도 같은, 간절히 찾아 헤매며 갈구하는 마음의 상태로 체험되기도 하며,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나 ‘성적 충동’과도 같은 본능적 충동처럼 체험되기도⁴¹⁾ 한다. 사례들을 통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창조적 충동’은 처음에는 많은 음식을 먹어도 허기가 가지지 않는 극심한 배고픔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체험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개인 자신의 배고픔으로 간주하기에는 그 배고픔이 이상하리만치 낮설고 거대하여, 누구의 배고픔인지 알 수 없는 낮설고 어두운 배고픔이 개인의 몸을 통해 느껴지는 것처럼 체험되기도 한다. 그러한 체험을 하는 개인은, 자신을 압도하고 사로잡는 낮설고 어두운 배고픔에 의해 자신이 습격당하고 강타당하는 것

40) Chas Newkey-Burden(2010) : *Stephenie Meyer, queen of twilight, The Biography*, John Blake Publishing Ltd, London, pp233-234.

41) 가장 강한 충동이 구체적으로 이용되기를 요구하고 흔히 강요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예외없이 생물학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경과는 인격의 측면에 의해 강하게 수정되기 때문이다. 기질적으로 정신적인(영적인 spiritual)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충동 활동조차도 일종의 상징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것은 더 이상 충동성의 순수한 충족이 아니고 여러 ‘의미’와 결부되어 복잡해진다. 구체적 실현을 요구하지 않는, 단지 증후적인 충동 과정일 때는 그 충동의 상징성이 두드러진다. 용 CG. (한국용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2) : 용 기본 저작집 3권, <인격과 전이>, 솔 출판사, 서울, p263, pp350-351.

같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붕괴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고 감당해야 하는 버거움과 외로움을 겪기도 한다.

폰 프란츠(Marie-Louise von Franz)는 자신의 저서 '창조신화(Creation Myths)'에서 '창조적 인격(Creative personality)'에 대해 "창조적인 사람들을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렵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이 신경증을 겪고 있거나 신경증적 위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신경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증후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삶의 외적이거나 내적인 상황들에 부적응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떠나지 않고 그래서 창조적인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현하려고 하는 창조적인 과제가 창조적인 인격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며 그의 무의식이 그것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창조적인 인격은 창조적인 과제의 무게로 인해 짓눌리게 됨으로써, 마치 신경증적 위기 상태에 있는 사람과도 같이, 부적응적이고 불가해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곤 한다."⁴²⁾라고 서술하였다. 폰 프란츠는 또한 같은 책의 '창조주의 주관적 정서(Subjective Moods of the Creator)'라는 장에서, 창조를 앞두고 겪게 되는 주관적인 감정 상태⁴³⁾로 '편치 않은 느낌' '불안' '조바심(좌불안석)' '좌절감' '지루함' '외로움' '두려움' '울음(웃음)'이 터져나옴' '허기' 등을 언급하면서, 중세의 언급술사들이 '영혼의 고통(*afflictio animae*)'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던, 창조 행위에 선행하는 '우울'과 '슬픔', 즉, '의식수준의 저하(*abaissement du niveau mental*)'⁴⁴⁾ 상태에 유비하였다.⁴⁵⁾

'창조'라는 목적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의식의 자아가 그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정서적 고통과 본능적 충동으로 체험되기도 하는 '창조적 충동'은, 환상

42) Marie-Louise von Franz(1995) : *Creation Myths*, Shambhala, Boston & London, pp17-20.

43) 창조를 앞두고 겪게 되는 주관적인 감정 상태는, 창조주가 겪는 감정 상태이기도 하며 동시에, 개인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창조주의 의지를 깨닫게 되는 개인이 겪게 되는 감정 상태이기도 하다.

44) 이러한 의식수준의 저하는 무의식 속에 있던 중요한 내용이 문턱을 건너 의식으로 들어 오기 직전에 흔히 나타나게 된다.

45) Marie-Louise von Franz(1995) : *Creation Myths*, Shambhala, Boston & London, pp181-223.

(vision)이나 꿈을 통해 상(상징)으로 나타나고 표현됨으로써, 의식의 자아에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고 알려지게 된다.

‘창조적 충동’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는 것인가?

본 논문의 앞의 부분에서 소개한 31세 여성 작가 스테프니 메이어의 꿈과 삶, 여성 작가 엘렌느 식수스(Helene Cixous)의 짧은 글, 젊은 남성 작가 아이작 마리오(Isaac Marion)의 삶과 창작 과정, 그리고 44세 여성A의 꿈을 소개하고 조 명해 봄으로써 앞의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하였다.

**31세 여성 작가 스테프니 메이어(Stephenie Meyer)의 꿈과 삶

본 논문의 제 1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스테프니는 ‘원형적 꿈’을 체험⁴⁶⁾하게 되었으며, 누미노스한 것과 접촉⁴⁷⁾⁴⁸⁾하게 되었다. <숲 속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왕래가 없는 등근 풀밭에서 인간 소녀와 사랑에 빠져 대화에 몰두하며 ‘햇빛 아래

46) “나는 아직도 그 꿈의 내용이 생생하게 보인다. 그 꿈은 정말 이상하고 특별했으며 나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것처럼 생생하고 인상 깊은 꿈을 꾸 적이 없다.” “해가 뜨고 일과가 시작되면 잊혀지고 사라져버렸던 예전의 꿈들과는 다르게 그 꿈의 장면은 나에게 깊이 각인되어 잊혀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책장을 덮고 내려놓기를 원치 않는 큰 책을 읽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햇빛 아래에서 본 그 뱀파이어 청년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47) 누미노스한 것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진정한 치유는 불가능하다. Von Franz, M.L. (1993) : “The Religious Dimension of Analysis”, *Psychotherapy*, Shambhala, Boston & London, pp178-200.

48) 원형적인 내용이 꿈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으로부터 누미노스한 치유 효과가 솟아나오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꿈을 꾸 개인으로 하여금 그동안 개인에게 차단되어져 있던 종교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 나 자신도 이와 같은 체험을 겪어왔다. 이와 같은 신적(神的)인 영향(influxus divinus)이 일어날 때, 선입관 등에 의해 그것을 저지하거나 중단시켜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합한 태도와 마음가짐에 의해 그것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가능하다. 나는 이러한 신적인 영향에 반응하는 모든 것을 하고자 노력했으며 그것에 반(反)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자 노력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연금술사들과 파라셀수스(Paracelsus), 보메(Bohme) 등이 ‘계시’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과 같은 무의식으로부터 자발적인 행위가 생겨나게 된다. Jung, letter to Vera von Lier-Schmidt Ernsthause, 25 April 1952, Letters, vol.2, pp56-57.

에서 빛으로 반짝이는 아름다운 몸을 드러낸 뱀파이어 청년'의 모습)과, <인간 소녀를 매우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동시에 소녀의 피의 냄새에 특별히 끌려 소녀를 덮쳐 피를 마시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느라 매우 힘든 자신의 갈등과 고통을 소녀에게 고백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빛의 몸을 가진 영원히 죽지않는 뱀파이어 청년'과 인간(mortal) 소녀의 애틋하고도 조마조마한 만남과 사랑>이 스테프니에게 큰 충격⁴⁹⁾을 주었으며 스테프니에게 각인되었다. 꿈의 장면을 글로 쓰지 않을 수 없었으며, 꿈 속에서 조우한 '뱀파이어 청년'과의 동행을 계속 해야만 함을 깨닫게 되었다.⁵⁰⁾ 꿈 속의 연인들의 사랑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 스테프니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몫시도 절박한 현실의 과제가 되었으며, 그래서 스테프니는 꿈 속에서 본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꿈 속의 상황에 몰두하며 그 후 연인들의 사랑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몰두하고 정관(靜觀)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명상의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계속 써나가게 되었다.⁵¹⁾ '창조적 충동'이 강렬한 불길 혹은 거센 물줄기와도 같이 솟아오

49) 존재를 뒤흔드는 실존적 충격.

50) “꿈의 내용을 글로 옮겨 적기 시작하면서 적혀진 글 속에서 어떤 잠재된 가능성과 힘이 꿈틀거리고 있는 있음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것에 깊은 인상과 압도되는 충격을 느꼈다.” “일상의 의무와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단 한 순간도 새벽의 꿈의 내용, <빛의 몸을 가진 뱀파이어 청년과 인간 소녀와의 만남과 사랑>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 해야만 했으며, 내 마음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꿈 속의 모든 장면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잊혀지기 전에 기록해 두어야만 했다.” “나의 손가락은 이미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으며, 빈 화면은 순식간에 글자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꿈을 글로 적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완전히 그것(글쓰기)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나의 한 부분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매우 당황하고 놀라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그것을 발견하였으며, 갑자기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 전에는 뱀파이어에 대한 꿈을 꾸 적이 없었으며, 뱀파이어에 관심을 가져 본 적도 없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뱀파이어와 조우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뱀파이어와의 동행을 계속해야만 했을 뿐이다.”

51) ““내가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꿈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그 답을 찾아내야만 했다. 꿈 속의 장면에 집중하며 꿈 속의 연인들에게 그 후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에 대해 몰두하고 명상하게 되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나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이 글을 읽게 되는 사람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글을 비밀스럽게 써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의 수영레슨에 동행하고 일상의 허드렛일을 하는 동안에도 나의 머릿 속은 내가 쓰고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어디로 도달하게 될 지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생각들과 영감들이 나에게 올 때면 그 즉시 메모를 해두었다가 일상 중에 생기는 모든 기회와 틈을 훑쳐내어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써내려갔다. 생각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을 즉시 적어두지 않으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는 나에게 매우 절박한 것이었다. 한밤중에라도 깨어나면 머리에 떠오른 생각들을 그 즉시 메모할 수 있도록 침대 머리맡에 펜과 공책을 가져다 두었다.”

르고 분출되어져, 그 꿈을 꾸기 전 까지는 글을 써 본 경험이 없는 스테프니를 사로잡았으며, 꿈 속에서 조우한 뱀파이어 청년과 인간 소녀의 만남과 사랑의 추이와 예후가 지금 그녀 자신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현실적 당면과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통찰하게 되었다. 그녀 자신만이 혼자 간직할 마음으로, 그녀 자신만을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일상의 과제와 과제 사이의 모든 틈을 글쓰기에 몰두하였다.

스테프니의 글쓰기는 ‘적극적 명상(active imagination)⁵²⁾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꿈 속에서 조우한 ‘햇빛 아래에서 빛으로 반짝이는 몸을 드러낸 어둠의 남자(뱀파이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고 정관(靜觀)하는 과정에서 그녀에게 다가오는 떠오르는 생각들과 영감(靈感)들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해 나가게 되었다. 한 편으로는, 그녀 자신을 뱀파이어와 사랑에 빠진 인간 소녀와 어느 정도 동일시함으로써 그녀 자신이 뱀파이어 청년과 사랑에 빠진 인간 소녀가 되기도 하였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뱀파이어 청년과 인간 소녀의 사랑 이야기의 객관적인 관찰자 입장이로서의 그녀 자신을 유지해 나가게 되었다. ‘글쓰기’ 과정을 통해 스테프니는, 한 편으

52) 환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융(C.G.Jung)은 지적한다. ‘적극적 환상’과 ‘피동적 환상’이 그것이다. 전자는 직관, 다시 말해서 무의식을 인지하려는 자세에 입각하여 행해지며, 이 때 리비도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요소들을 즉시 사로잡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고도의 명확성과 인식 가능성을 부여한다. ‘피동적 환상’에서는 정신의 해리가 어느 정도 일어난다고 가정되고, 그 때 나타나는 환상의 내용은 의식에 대하여 대립되는 경향과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적극적 환상’에서는 반드시 해리상태가 일어난다고 볼 수 없고 의식은 무의식에 대하여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참여의 자세를 갖게 되며, 무의식의 과정보다 의식에 대하여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보충적(보상적)인 특징을 띠게 된다. ‘피동적 환상’이 병적 또는 비정상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비해, ‘적극적 환상’은 흔히 인간의 최고의 정신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의식과 무의식의 성격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적극적 명상’은 적극적 환상과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적극적 명상’이 가능하려면 자아가능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어야 하며 자아의 성실한 태도가 무엇보다도 요청된다. ‘적극적 명상’은 무의식과의 대화이다. 이것은 그림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글로 표현될 수도 있다. 참을성 있게 무의식으로부터의 심상(心像)을 묘사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의식에 대한 자아의 적절한 관심만이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초월적 기능을 촉진하게 한다. ‘적극적 명상’은 정신의 변환과정을 가능하게 하며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에 옮겨 오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든 종교에서의 명상은 모두 융의 적극적 명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C.G.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서울, pp288-293.

로는 억압하고 있었으며⁵³⁾ 다른 한 편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던 자신 내면의 무의식 속의 내용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찰하게 되었으며, 무의식의 내용(像)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며 무의식을 의식화 하게 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합성과 '인격의 창조적 변환'이라는 열매를 동시에 맺어가게 되었다.⁵⁴⁾ 그녀가 끈 꿈을 적은 기록⁵⁵⁾이기도 하며, 꿈에서 시작한 '적극적 명상' 과정이기도 한, 의식과 무의식의 공동 작업에 의해 하나의 작품으로 창조되고 탄생된 그녀의 글은, 우연히 그것을 알게 된 언니의 권유에 의해 책으로 출판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한 2003년 6월 2일 새벽의 '큰 꿈'을 꾸기 전까지는 스테파니는 자신 내면에서 불안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창조적 충동과 불길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피하고 억압하며,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딸로서 모범적인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그 꿈'을 꾸 이후에는 그녀는 그것을 속으로만 담아둘 수 없게 되었으며 그것을 글로써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 스테프니는 자신이 타고난 창조적 기질과 자신 내면의 창조적 불길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테프니는 '그 꿈'을 글로 적어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융(C.G.Jung)은 그의 논문 '심리학과 시문학'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예술가의 마음 속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작품은 하나의 본연의 힘

53) 스테프니는 자신 안에 창조적 충동이 내재하고 있음을 어린 시절부터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나 그 꿈을 꾸기 전까지는 자신 안에 잠재하고 있는 창조적 충동의 불길을 두려워하고 억압하고 피해왔다. 자신안의 창조적 불길을 피해가기 위해 대학을 영문학으로 진학하였으며, 대학시절에도 글쓰기(creative writing) 수업을 피했다. 결혼이 자신의 내면에서 불안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창조적 충동의 불길을 틀어막아 진정 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심하기도 하였다.

54) “나는 나의 세 아이를 사랑하며 아이들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서 어떤 특별한 것, 나 자신이 되는 나의 길이 필요했다. 내 삶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듯 허전한 마음이 들었었다. 드러나지 않은 많은 창조성이 내 안에 있었으며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밖으로 분출되어 진 것 같다. 바로 나 자신이었던 중요한 어떤 것을 가지게 된 것은 구원이었다. 나는 항상 작가(storyteller)였다. 단지 내가 너무 수줍음이 많아 이제껏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 뿐이다.”

55) 스테프니의 꿈은 그녀의 처녀작으로 세상에 발표된 소설 '트와일라잇'의 제 13장이 되었다.

(Naturkraft)이며, 그것은 때로는 폭력적으로, 때로는 어떤 본연의 목적을 지닌 눈에 띄지 않는 지략으로서, 창조적인 것의 운반자인 그 인간의 개인적 안녕을 무시한 채 계속 그 뜻을 관철한다. 창조적인 것은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박고 영양분을 강요하듯 인간 속에서 살고 자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과정을 인간의 마음에 뿌리박은 생명체처럼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자율적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으로 작품세계 속에 모습을 드러낸다. 창조적 콤플렉스는 개인적 무의식보다는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는 원형들이다. 이와 같은 원초적 상(像)들은 작가에 의해 그 시대의 예술로 번역됨으로써 그 시대 사람들의 무의식의 심층을 활성화하고 의식을 새롭게 한다. 그 상(像)들은 바로 시대정신에 부족한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창작물이 그러한 강한 반항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모든 작가가 그러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시대정신의 부족한 측면과 어둠을 보상하는 치유의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예술가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상들과 상징들을 언어나 형상으로 표현하는 '환상적 창작' 방식에 의해 출산된 작품들에 기인한다. 즉, 예술적 창조를 통해 집단적 무의식의 상(像)들이 표현됨으로써 일방적으로 경직되어버린 위험한 의식 상태가 균형을 되찾게 된다. 모든 창조적 인간은 이중성이거나 역설적 특성들의 합성으로써, 한편으로는 인간적-개인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개인적-창조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그는 건강할 수도 병들었을 수도 있으며, 그의 개인적 심리학은 개인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예술가로서 그는 자신의 창조적 행위로부터만 이해되어야 한다. 특수한 예술가의 심리학이 집단적 문제이고 개인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를 붙들여 도구로 쓰는 충동처럼 예술도 그가 타고난다.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의지를 행사하는 것은 개인인 그가 아니라 작품이다. 사람으로서 그는 기분과 의지, 자신의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술가로서 그는 더 높은 의미에서의 '인간'이고 집단 인간, 무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인류 심혼의 운반자이자 형성자이다. 그것이 그의 직(職)이며, 그의 인간적 행복, 평범한 인간에게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희생될 정도로 그것의 부담이 커지기도 한다. 이러하기에 예술가의 삶은 필연적으로 갈등들로 가득하다. 한편에는 행복, 만족, 생활 안정에 대한 적당한 요구들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 다른 한편에는 때로 모든 개인적 소원들을 땅에 던져버리는 무자비하고 창조적인 열정이 있

다… 원형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무관심한 누멘(Numen)(신성한 힘)으로써 의식과의 충돌을 통해서 비로소 이련저런 또는 모순적 이원성이 드러난다. 많은 원형들이 있지만 의식이 중도를 벗어남으로써 자극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개개인의 꿈에서도 예술작품들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의식이 일방적이고 잘못된 태도로 가버리면 이 '본능'들이 살아나서 그 상(像)들을 각 개인의 꿈 속으로, 예술가와 예언자의 시야로 보내 심혼의 균형을 되찾으려고 한다. 따라서 민족의 심적 욕구가 작가의 작품 속에서 실현되며, 그래서 작품은 작가에게, 그가 의식하든 못하든, 행위와 진실에서 그 자신의 개인적 운명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를 만든 그 작품에 몸을 맡겨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그의 근원체험이었던지를 이해한다. 그는 약이 되고 구원을 주는 심혼적 심층을 건드렸다. 그 심층에서는 모두 같은 진동에 몸을 맡기고 있고 그래서 각자의 느낌과 행위가 모든 인류에게 널리 미치게 된다. '신비한 참여(participation mystique)'의 근원상태로 다시 가라앉음이 예술 창조와 작용의 비밀이다. 이 체험의 단계에서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 체험하며, 더 이상 개인의 고락이 아니라 민족의 삶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대한 예술작품은 객관적이고 비개인적이면서도 우리를 가장 깊게 건드린다.⁵⁶⁾

그렇다면, 스테프니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며 피하고 억압해 왔던 그녀 내면의 '창조적 충동'이 거센 불길로 그녀를 사로잡으며 의식 세계로 터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과 작품에서 모두 기쁘고 행복한 열매⁵⁷⁾를 맺어가고 이유는 무엇일까? 스테프니는 '창조적 기질(creative personality)'을 타고 났으며, 무의식 세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상상력과 감수성이 풍부한 여성이며,⁵⁸⁾ 책읽기를 좋아하여 매우 많은 책들을 탐독하였다. 모범적인 딸로서 학생으로서 모범적인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성실한 삶을 살아온 여성이며, '모성적 본능'이 잘 발달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자아기능과 튼튼한 자아강도를 가진 여성이기도 하다. 또한 스테파니는 자신 안에서 넘실거리

56) 융, C.G. (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 번역 위원회 역)(2004) : 융기본저작집 9권, 《인간과 문화》, 솔출판사, 서울, pp158-179.

57) 본 논문 제 1장 참고.

58) 본 논문 제 1장 참고.

고 있는 창조적 충동의 불길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는 ‘동물적 본능’과 신중함을 지니고 있기도 하며, 세 아이의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평범한 삶에 만족하는 소박함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30세 경부터 ‘우울증’이라고 부를만한 마음의 상태를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는 본래 자신의 ‘전체성’에 속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부분, 즉 창조적 인격을 억압하고 피하며 살아온 데서 오는, 의식과 무의식의 해리로 인한 신경증적 상태라고 볼 수도 있으며, ‘창조’⁵⁹⁾를 앞두고 겪게 된 ‘창조 직전의 우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스테파니를 사로잡은 창조적 충동은 꿈⁶⁰⁾의 체험과 함께 시작되었다. 우울의 상태가 있는 후 그녀를 사로잡은 거센 창조적 충동이 꿈의 상(象)을 통해 상징으로써 의식의 자아에게 드러나고 표현되었다는 것이 후일 ‘창조적 충동’이 행복한 귀결로 이어지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스테파니의 창작 과정은, 의식의 자아가 ‘창조적 충동’의 볼모로 잡혀 도구로서 일방적으로 이용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의식의 자아가 꿈의 내용과 꿈의 상(象)에 진심어린 절박한 관심을 가지고 꿈의 내용을 적고 꿈의 상에 집중하고 정관하는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에 의해, 의식과 무의식의 공동 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도 행복한 귀결을 가져오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창작하게 됨으로써, ‘내향화’ 과정에 의한 ‘무의식과 의식의 합성’ 및 ‘인격의 창조적 변환’이, ‘환상적 창작’ 과정에 의한 ‘작품의 출산’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도 행복한 귀결의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잘 발달된 그녀의 ‘모성성(모성 본능)’과 ‘건강한 자아기능’과 ‘튼튼한 자아강도’ 덕분에, 다소간의 위기는 있었지만 무자비하게 그녀를 사로잡는 창조적 충동과 창조적 과제의 버거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세 아이를 정성껏 돌보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과제를 비교적 충실히 유지해나갈 수 있었다. 창조적 충동과 창조적 과제가 그녀의 수면 시간마저도 점점 침식해 들어가기 시작하자, 수면부족으로 인해 생후 1년도 채 안된 막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으며, 두 눈이 흐릿해지거나 머릿속이 몽롱해질 때면 내키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자신의 몸을 끌고 침대 속으로 들어가 수면을 취하

59) ‘인격의 창조적 변환’과 ‘예술적 창조로서의 작품의 출산’ 두 경우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60) 본 논문 제 1장 가장 앞부분

고자 노력하였다.

스테프니의 꿈은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일까? 우리가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심층의 무의식 영역에 접촉하게 됨으로써 '자연의 빛(lumen naturae)', '집단적 무의식의 절대지(absolute knowledge)' 라고도 부르는 무의식의 치유적 기능, 자율적 보상기능, 창조적 기능의 영향 속에 놓이게 된다. 전체정신이기도 하며 전체정신의 중심이기도 한 '자기원형(Self archetype)'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데, 이 '자기원형'은 인간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본래 타고난 그 사람의 고유하며 온전한 가능성을 모두 꽃피우고 살도록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전체정신을 실현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마치 신(神)에게도 빛과 어둠의 양면성이 있듯이 '자기원형'은 의식의 자아에게 항상 긍정적인 작용만 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원형'이 의식의 자아에게 치유적으로 작용하느냐 파괴적으로 작용하느냐는 무의식을 대하는 의식의 자아의 태도에 달려있다.⁶¹⁾ 무의식의 존재들은 의식에게로 다가와 의식의 자아와 더불어 의식적 인격으로 통합되어 이 세상의 삶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신화, 민담,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요괴' '인간의 피와 살을 갈망하며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뱀파이어와 좀비' '인간의 사랑을 받아야만 흥한 모습에서, 동물 혹은 야수의 상태에서, 인간으로 변하는 존재들' 그리고 '신(神)의 육화(肉化)'라는 종교적 모티프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만일 의식의 자아가 꿈을 성찰하고 무의식 속의 존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면을 하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에 귀기울인다면, 처음에는 마치 의식의 자아를 해치러 오는 것처럼 무섭고 흉하고 악하고 부정적으로 보이던 무의식의 상(像)들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환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고유한 자기자신이 되고 자신의 전체가 되는 자기실현(개성화) 과정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이 의식의 인격으로 통합됨으로써 자기자신의 인격과 삶을 꽃피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이 꿈을 꾸 스테프니 메이어에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빛이 반짝이는 몸을 가진 '뱀파이어 청년'과의 만남은 스테프니로 하여금 그 꿈과 그들의 사랑을 글로 쓰지 않을 수 없는 강한 충동을 불러일으키게 됨으로써, 그녀 자신

61) 李符永(1998) : 《분석심리학-C.G.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서울, pp112-125.

도 모르고 있던 그녀 안의 새로운 가능성인 작가로서의 창조적 자질과 내면 세계를 인식하는 직관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꽃피우게 하였다. 누미노스한 내용의 꿈을 꾸고 꿈의 내용을 쓰지 않을 수 없어 자신을 위해 글로 써내려가다가 책으로 펴낸 후 그녀의 삶은 큰 전환점과 변화를 맞게 되었다. 책으로 출판된 그녀의 꿈이야기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또한 그녀는 자신도 모르고 있던 자신 안의 새로운 가능성과 삶을 발견하게 되었다. 작품이 가장 보편적인 인간정신의 원초적 심층, 집단적 무의식에서 우러나온 것일수록 그것은 만인의 가슴 깊은 곳을 강하게 두드리게 되며 시대를 넘어 영속한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강하게 솟아오르는 자연스러운 충동을 진지하게 성찰해나가다 보면 그러한 충동은, 우리가 억압하고 무시해야 할 것이라고 보다는, 우리가 흔히 '신(神)의 의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전체정신의 중심인 '자기원형'이 의식의 자아에게 전달하는, 충동의 의미의 실현을 촉구하는 메시지임을 발견하게 되곤 한다. 만일 스테프니 메이어가 이 꿈을 단지 꿈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무시하였다면, 그녀의 꿈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빛과 어둠을 한 몸에 품고 있는 자기(Self)의 사자(使者)이며 창조적 영감과 창조적 힘의 원천이기도 한, 그녀 안의 아니무스 상(像)인 뱀파이어 청년은, 그녀의 피를 탐하고 그녀를 죽이는 파괴적인 뱀파이어로 변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며, 그녀는 우울과 수동적 환상 속에서 남은 삶을 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의식의 자아가 무의식의 존재로부터 등을 돌리고 무의식적 존재들을 소외시키면 되면 그 존재들의 이 삶을 향한 갈망과 갈증은 무의식의 존재들로 하여금 의식의 자아를 공격하여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파괴적인 존재로 변하게 한다. 의식의 자아는 의식을 침범하는 낯설고 부정적이며 강박적인 생각들, 자살에 대한 생각, 무가치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유의지로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며, 생기와 삶의 활력과 삶의 의욕과 삶의 의미를 잃게 된다. 수동적 환상과 백일몽에 빠져들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유리되고 소외된다. 결국 '뱀파이어'를 주제로 한 초기작품에 묘사된 상황과도 같이, '뱀파이어' 성(城)에 납치되어 피를 빼앗기고 서서히 쇠약해져 죽어가는 희생자의 모습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기원형'은, 개인과 시대의 위기 상황에서 꿈 등을 통해 인상 깊은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개인과 그

시대로 하여금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전체가 되기를 거듭 촉구하며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존재에 대해 파괴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 같다. 이는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 속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인 “포도나무가 포도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려라.”라는 구절을 떠오르게 한다.

의식을 넘어 내면의 세계를 인식하는 시인(작가)과 같은 사람들은 의식과 무의식의 대립관계와 경계를 상당히 넘어선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미 '자기(Self)' 가까이에서 있고 그 체험을 노래나 글 속에 표현한다. 시인이나 작가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자기원형'의 뜻을 직접 짚어지고 있다.⁶²⁾ 이러한 상황이 스테프니 메이어의 꿈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 청년은 인간의 피를 갈망하는 '뱀파이어' 입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아닌 햇빛이 밝은 낮에 인간 소녀와 함께 있으며 '뱀파이어' 청년의 몸에서는 아름다운 빛이 반짝이고 있다. 또한 '뱀파이어' 청년은, 과거의 '뱀파이어'들에서 보이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이의 무시무시하고 초인간적이고 괴괴한 모습이 아닌, 소녀 나이 또래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과거 '뱀파이어' 초기작에서 보이던 위협적이고 침입적이며 의사소통이 안되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 소녀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대화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이다. 소녀 역시 '뱀파이어' 청년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게 되고 '뱀파이어' 청년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있다. 스테프니 메이어의 꿈의 상(像)은, 그 때까지 그녀 자신은 모르고 있었으나, 이미 그녀 내면의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전체정신을 실현하여 자신의 온전한 가능성을 꽃피울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테프니 메이어의 '원형적인 꿈'이 글과 영화로 탄생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 '트와일라잇' 시리즈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것이 누군가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큰 감동을 주게 되며 끌리고 매혹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누군가의 안에도 그 어떤 것의 측면과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 같다. 그녀가 꿈을 통해 개인적으로 체험해나간 그러한 상황은 사실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역시 갈망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이 시대 정신에 결핍된, 이 시대정신에 꼭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62) 이부영(2001) :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부영*분석심리학 탐구2》, 한길사, 서울, p241.

것이다.⁶³⁾ 이 시대가 시대의 어둠을 대면하고 의식화함으로써 보다 온전한 전체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녀의 작품을 접하고 깊은 감동과 공감을 느낀 사람들은 이제 더이상 자신의 꿈 속에 나타나 자신을 애타게 쫓아 오는 어둠 속의 존재들로부터 무조건 도망치지 않게 될 것이며 어둠 속의 존재들을 대면하고 그들의 말에 귀기울이고자 용기를 내고 노력할 것이다. 그녀의 작품은 그녀의 작품을 접하고 가슴깊이 감동을 받은 이 시대 사람들의 의식의 태도에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내면 무의식의 어둠 속에 소외된 존재들과 외부세상 음지에 소외되어 있는 존재들에 대해 무조건 두려워하고 혐오하며 배척하기 보다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여성 작가 엘렌느 식수스(Helene Cixous)⁶⁴⁾의 글쓰기

엘렌느 식수스는 <글쓰기로 나아가기>라는 그녀의 저서에서 ‘몸으로 글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⁶⁵⁾

“너를 내맡겨 뒤. 글이 지나가게 뒤. 네 몸이 젖도록 두고, 몸을 풀고 강물이 되는 거야.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문을 여는 거지.”

“내 목소리는 죽음을 밀어낸다. 실은 죽음을 가로막기 위해 썼다. 부재를 채워가는 글쓰기는 마침내 죽음을 밀어내고 새로운 존재를 세상에 있게 만든다. 나는 글쓰기를 통해 내 존재를 확인할 뿐이다. 초월⁶⁶⁾에의 가능성까지 넘본다.”

63) 엘곤(Elgon) 원시림에 사는 엘곤족들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꿈을 꾸게 되면 혼자 간직하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다고 한다. 그러한 꿈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된 의미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李符永(1998) : 《분석심리학-C.G.Jung의 인간 심성론-》, 일조각, 서울, p122.

64) 엘렌느 식수스 : 1937년 알제리 오랑 출생. 보르도와 파리에서 교사생활. 1968년 5월 혁명에 참가. 유명한 어학자 주네트(G.Genette), 토드로프(Todrov) 등과 함께 <시학(Poetique)> 창간. 첫 소설 <내부(Dedans)>가 1969년 메디시스상 수상. <도라의 초상(Le Portrait de Dora)>으로 연극 입문. 1970 <제3의 몸>, 1977 <숨(Souffles)>, 1986 <글쓰기 사이>

65) 박혜경(1996) : “몸으로 글쓰기-엘렌느 식수스 ‘글쓰기로 나아가기’를 중심으로”, 《프랑스 소설 속의 여인들을 찾아서》, 여성신문사, 서울, pp227-240.

“내 안에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타인이 떠돌고 있다. 피처럼… 내가 글을 쓰면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글을 쓰면 타인들은 안전하다.”

“쾌활한 힘, 그러나 위에서 오는 힘이 아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지대, 몸 안, 그러나 전혀 알 수 없는 어느 곳으로부터, 마치 몸 안에 또 다른 무한대의 공간이 있는 것처럼, 심오한 깊이와 관련된 어느 곳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나오려고 하는, 방출하려는 추진력. 태어나고자 하는 존재. 목속에서 울려나오는 음악. 마치 목구멍으로 출산해내려는 것 같은 육감적 필요.”

“네가 쓸수록 너는 검열에서 빠져나오고, 여성들은 확신에 차고,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창조한다.”

작가 엘렌느의 '글쓰기'는 그녀 자신과 그녀 내면의 타자(他者)들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열쇠이며 치유와 구원의 도구이다. 그녀가 글을 쓰지 않으면 그녀 자신과 그녀 안을 떠돌고 있는 그녀 안의 타자들은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 그녀 안의 타자들은 그녀의 피이며, 그녀의 생명의 정수(精髓)들이다. '창조적 충동'은 그녀의 몸 속 깊은 곳 알 수 없는 무한의 공간으로부터 그녀에게로 흘러들어 샘처럼 솟아올라 그녀를 적시는 강물이 되며, 그녀를 흠뻑 적신 '창조의 샘'은 그녀를 수태시킨다. 그녀의 몸을 범람하는 '창조적 충동'은 그녀를 통해 이 세상 속으로 태어나길 갈망하고 염원하는 저 편, 무의식 속의 존재들의 갈망과 염원의 기도와 노래이며, '신성(神性)의 유입'이며 '신(神)의 의지'⁶⁷⁾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어떤 것이다. 창조적 충동에 기꺼이 몸을 맡기고, 잉태된 글을 출산

66) 1929년 쿠르트 플라하테 박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상징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용은 '자기(Self)'라는 심적 요소가 집단적 무의식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자아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체험하기 전까지는 무력하다는 말을 한 뒤, 그러나 자아가 그것을 인단 의식하여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주도권을 차지한다고 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말에 표현되는 구원의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고자 하는 자아의 적극적인 자세로 인해 무의식의 조절자인 '자기원형'이 활성화 된다. 이리하여 인간은 의식을 넓히면서 자아에서 '자기'로 다가간다. '자기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는 진정한 의미의 그 사람의 개성이다. 자기의 상징과 '신(神)의 상(象)'은 경험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개성화(자기실현)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종교적 과정으로 종교적 자세를 요구한다. 즉 자아의 의지는 신(神)의 의지에 순종한다. 이부영(2002):《자기와 자기실현, 이부영*분석심리학 탐구3》, 한길사, 서울, p57, pp80-92.

67) '신(神)의 의지': 개인이 자신의 '전체성'에 이르도록 개성화(자기실현) 과정을 주재하는 '자기원형'의 창조적이며 자율적 기능, 충동력.

해내고자 애쓰는 산고의 진통을 겪게 됨으로써, 그녀 내면의 무한공간을 떠돌던 타자는 이 세상 속으로 그녀의 의식된 존재 속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녀는 자아를 초월하게 된다. 글쓰기를 통해 무의식은 의식화되고 의식과 무의식의 합성이 일어나게 되며 인격의 창조적 변환이 있게 된다. 개인이 자신 안의 '중심'이며 '전체'인 '자기원형'과 접촉하며 '자연의 빛(lumen naturae)'과 닿게 되는 것은 자신 안의 신(神)을 만나는 초월적 체험이기도 하다.

**32세 남성 작가 아이작 마리온(Isaac Marion)의 삶과 창작 과정⁶⁸⁾

최근 개봉되어 많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좀비 청년과 인간 여성과의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웜바디스(Warm Bodies)'의 제작은 영화 관계자가 아이작 마리온의 블로그에 실린 인터넷 상의 짧은 글에 감명 받아 제의를 하면서 비롯되었다.

아이작 마리온은 1981년 미국 워싱턴 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매우 가난하여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으며 가족과 함께 텐트나 트레일러에 살면서 무수히 많이 이사를 다녔다. 친척의 차고에서 가족들이 함께 지내기도 했는데, 차고에서 지내면서 16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어둠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처음으로 완성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채 혼자만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글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발표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다. 아이작은 인상적인 꿈을 꾸곤 하였으며, 인상적인 꿈을 꾸게 되면 기록을 하고 인터넷의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68) Isaac Marion(2013) : Article on The Seattle Times, 'Isaac Marion's "Warm Bodies", in theaters this Friday, is a portrait of zombie/human love' by Tom Keogh.

_____ (2013) : 'Frequently Asked Questions' www.burningbuilding.com (personal website of Isaac Marion)

_____ (2009) : Interview with The Black Letters, 'Some words with Isaac Marion'

_____ (2013) : Interview with National Geographic Society 'Interview with "Warm Bodies" author Isaac Marion' by Tara C. Smith

_____ : 'Life expectancy' www.burningbuilding.com (personal website of Isaac Marion)

_____ (2008) : Review from The Black Letters, 'The Inside, by Isaac Marion'

_____ (2013) : 'The New Hunger' www.burningbuilding.com (personal website of Isaac Marion)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대화하곤 하였다. 꿈의 내용과 꿈 속의 대화를 그대로 옮겨 적은 글을 쓰기도 하였다. 언젠가는 꿈 속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잠에서 깬 후에도 그 여인이 잊혀지지 않고 몹시 그리워, 그 여인에 대해 그 여인과의 만남에 대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작에게 꿈은 글을 쓰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아이작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대학을 가기도 힘들고 학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직업을 가지기도 어려우니, 스스로 많이 배우고 많이 글을 쓰자고 결심하였다. 그가 처음 <나는 사랑으로 충만한 좀비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썼을 당시, 그는 스스로에 실망한 채 좀비 같은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에게 '내가 정말 좀비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물들을 바라볼까?'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게 되었으며 자신이 좀비가 된 환상에 실재처럼 몰두하며 창작한 짤막한 글 <나는 사랑으로 충만한 좀비입니다.>를 언제나처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게 되었다. 며칠 만에 조회수가 평소(하루에 150회)에 비하여 수백 배(하루에 70,000회)에 달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되었으며, 폭발적인 조회수를 보고 자신의 짧은 글에 '무언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글에 더욱 몰두하고 완성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인터넷에서 아이작의 짧은 글 <나는 사랑으로 충만한 좀비입니다>을 보고 감명을 받은 영화제작자로부터 그의 글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왔다. 영화로 만들기로 계약하고 영화제작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얻게 된 아이작은, 그가 흥미를 가지고 취미로 즐기던 작곡과 사진 촬영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이고, 글쓰기에 온전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그의 짧은 글 <나는 사랑으로 충만한 좀비입니다>를 한 편의 완성된 소설 <웬바디스>로 완성하게 되었다.

아이작은 창작에 대한 자신의 소신에 대해 "누구에게나 분명해 보이는 것을 전복시키고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전복되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되고 공감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동명으로 영화화된 원작 소설 '웬바디스'에로의 창작과 완성 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보'와 '경험'이 서로 어우러지게 될 때, 서로가 특별한 방식으로 접촉하여 그 결과 뇌에서 잉태되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답변하였다. 한 편의 완성된 소설이자 세상에 발표된 처녀작 '웬

바디스'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아이작에게 글쓰는 태도와 작품 세계에 있어서 예전과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것에 대해 아이작은 “신(神)의 볼모로서의 마음 없는 한낱 개체가 아니라 인간 존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욕구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무의미하게 인생을 소비하던 당시의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로써, 삶을 다시 발견해나가는 노력의 과정이 ‘좀비 청년이 인간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이 깊어져 인간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다. 따라서 아주 묘하게도 그 소설이 나의 자전적 글이 되었다.”

**‘창조’의 주제와 관련된 44세 여성 A의 꿈과 환상에 대한 고찰

A는 자신의 꿈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의식과 무의식을 함께 성찰해 나가며, 자녀의 엄마이고 남편의 아내이며 전문직을 가진 여성으로서, 또한 그녀 자신으로서, 자신의 전체를 실현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자 노력하는⁶⁹⁾ 삶을 살고 있다. ‘창조’의 주제와 관련된 A의 꿈과 환상(vision)을 시간 순으로 선별하며 조명해 보았다.

꿈 1) 해저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 바다 전체의 거대한 부피와 무거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깊은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저만치 앞에 검은 등에 흰 배를 가진 고래 두 마리가 있음을 본다. 각각의 고래에 연결된 두 가닥의 줄을 잡은 채 사각형의 나무 판 위에 서 있는 나를 본다. 그 때 내가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일까? 아니 그보다는 내 입을 통하여, 내 몸 속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떨림을 느끼게 하는,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노래는 내 입을 통하여 불리워져, 바닷물을 통해 퍼져나가 고래에게 전해지고, 그 때 까지 화석(化石)처럼 꼼짝 않고 죽은 듯 부동의 상태로 있던 거대한 몸집의 두 마리 고래는, 그 노래를 듣고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몸을 풀기 시작하더니, 쌍두마차의 두 마리 말이 마부의 신호에 따라 마차를 끌기 시작하듯이, 사각형의 나무판

69) 융C.G. Jung은 이것을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 ‘개성화 과정’ ‘자기실현 과정’이라고 칭하였다.

위에 올라서 있는 나를 끌고는 천천히 전상방을 향해 빛이 느껴지는 해수면 쪽을 향해 움직여가기 시작한다. 이 상황과 느낌이 나에게 강한 인상과 충격을 주는데, 한편으로는 깊고 어두운 바다 밑에서 살아남아 빛이 비쳐오는 쪽으로, 해수면 쪽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기쁨과 감사의 느낌에 그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어두운 바다 밑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두 마리의 고래의 도움을 통해서이며, 또한 두 마리의 고래를 움직여가게 하는 것이, 나의 몸 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나오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에 그러하다.

꿈 2)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중간 길목에 위치한 어두컴컴한 공간. 저 편 세상에서 파견 나온 사자(使者)(시험관, 심사위원)들이 중앙의 둥근 탁자를 중심으로 빙 둘러앉아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탁자 중앙에 놓인 것들을 심사하고 있다. 상황은, 이 세상의 인간이 저 편 세상을 향해 자신의 노래를 지어(작곡, 창작) 부르고 있는 것이며, 시험관들이 여기 중간 지역에 접수된 그 노래들을 심사하여, 심사에 통과된 세심하게 선별된 노래만이 저 편 세상에 닿게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저 편 세상의 존재는 이 세상의 인간이 저 편 세상을 향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인간이 저 편 세상의 존재가 그리워서 자신의 노래를 지어 부르지 않고는 살아낼 수가 없으므로, 그래서 애절한 그리움과 간절한 기도로 온 몸으로 부르는, 심금을 울리는 떨리도록 아름다운 그런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된 것이다.

꿈 3) 멀어서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편과 저 편 사이 틈. 까마득한 저 아래로 깊은 심연이 있다. 나는 견디기 힘든 그리움, 슬픔, 상심으로, 이 편 끝 절벽에서 저 편을 바라보고 있다. 그 때!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는 저 아래 심연으로부터 나에게로 오는 어떤 목소리가 있다. “영혼은! 네가 영혼을 그리워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너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네가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너와 만나 하나되는 영원한 사랑을 이루기를 갈망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결국 영혼이 네가 만나 하나되는 영원한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때 까지 그 기다림을 견디어 내야 한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던 나는 벼락을 맞은 듯한, 눈이 번쩍 뜨이는 듯한 강한 충격을 느낀다.

꿈 4) 천지창조 이전과도 같은 태초의 어둠, 그 짙은 어둠 속으로부터 한 소녀의

초록빛 얼굴과 초록빛 두 손이 모습을 드러낸다. 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초록빛 소녀는 이 곳 어둠의 열세 번째 존재이며, 칠혹같은 어둠 속에서, 어둠과 섞여 있던 상태로부터 그 존재의 형상이 분리되어져 나와, 초록빛 수줍은 소녀의 모습으로 나의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첫 존재인 듯하다.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온 탄생(creation)인 듯 하다.

꿈 5) 가슴 한가득 그리움이 차오른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님’을 부른다. 그 순간, 내 발 밑의 땅이 열리며 땅 속 저 아래의 깊고 검은 어둠이 내가 있는 방 안으로 연기처럼 밀려들더니, 지름이 내 키 정도 되는 ‘흰빛 구(球)’ 형상의 존재가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흰 빛 구(球)’⁷⁰⁾ 형상의 내 앞의 존재⁷¹⁾는, 몹시 그리워 간절히 불렀으므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나의 ‘님’이 신가보다. ‘님*’의 현신이 두 차례 반복된다./열린 땅 저 아래 검은 어둠으로부터 ‘님*’이 두 걸음으로 내게 다가오시더니, ‘님*’은 두 손을 뺀 나 의 두 발을 만지신다. ‘님*’의 손길이 닿은 나의 두 발은 초록색⁷²⁾으로 변하고, 초록색으로 변한 나의 두 발에서 아름다운 시어(詩語)들이 샘처럼 솟아나오기 시작하더니, 내 몸은 어느 새 아름다운 시(詩)가 되고 노래가 되어, 나는 온 몸으로 ‘님*’과의 만남을 노

70) ‘구(球)’ 확충(amplification) : ‘구’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전체성’이다. 헛된 투쟁으로 무기력하게 되었던 삶이 ‘구’를 통해 다시금 가능하게 된다. ‘구형’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된 ‘전체’인 ‘자기(Self)’의 상징이다. ‘영혼’과 ‘세계혼’은 ‘구’의 형태일 것이다. 그는 태초의, 그리고 최후의 시간의 둥근(구형의), 즉 완전한 인간, 인류의 시작이요, 목표다. 그는 성(性)의 분리 너머에 있는, 혹은, 오직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합성되어 합일됨으로써 도달될 수 있는 인간의 ‘전체성’이다. 안트로포스(Anthropos)의 상징이다. 자기(Self)의 자발적인 발현, 즉 자기(Self)의 상징들의 출현은 무의식의 무시간성과 같은 것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며, 영원성, 또는 불멸성의 감정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자주 보게 된다. 자기의 체현들은 강한 인각(印刻)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적 무의식의 현상 안에 속하는 것이다. 자기가 작업에 나타나고자 한다. 그러므로 작업은 개성화, 또는 자기실현의 과정이다. 무시간성 속에 존재하는 ‘전체’로서의 자기는 완전히 둥근, 양성적인(hermaphroditic), 원초적 존재(Original being)로,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간의 통합(의식과 무의식의 합성)을 나타낸다. 융, C.G. (한국융연구원 C.G.융저작번역위원회 역)(2002) : 융 기본 저작집 3권. 《인격과 전이》, 서울, p229, pp344-345

71) *의 표시는 A가 꿈 속에서 조우하게 된, 신(神)과도 같이 체험된 초월적인 존재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이다. 1955년 어떤 프랑스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융은, “우리는 자기(Self)의 상징들을 경험한다. 그것은 신(神)의 상징들과 구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 C.G. Jung, *Briefe, III*, p503. <자아와 무의식과의 관계>에서 융은 자기(Self)를 우리 속의 신(神)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C.G. Jung, *Die Beziehungen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ssten*, p134

래하고 있다. 시(詩)가 나의 온 몸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님*과의 만남, 이 순간!'을 시(詩)로 적어 남김으로써 영원하게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 기도(祈禱)와도 같은 내적 필연성을 느낀다.

꿈 6) 내가 있다. 관찰자인 내가 있고 동시에 텅 빈 흰 바탕 위에 그려지고 재단되어 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창작물(창조물)의 밑재료로 쓰여지고 있는 내가 있다.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와 그 존재*의 손의 기운, 움직임, 활기, 그리고 태어날 작품에 대한 그 존재*의 설레임이 느껴져 온다. 태어날 작품의 밑재료인 나의 몸은 공깃돌 크기의 작고 단단한 둥근 조각들-내 몸의 정수(精髓)인듯한, 돌맹이 혹은 결정(結晶)같은-이 되어, 작고 둥근 황토색 항아리에 담겨져 있다. 그 존재*는 항아리에 담긴 나의 둥근 몸조각들을 집어, 흰 바탕 위에 이렇게 저렇게 놓아가며, 어떤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VISION) 내 앞의 둥근 흰 빛이 점점 작아지면서 꺼지려고 한다. 나의 호흡(숨)이 내 몸에서 점점 빠져나가 숨쉬기 힘들고 고통스럽다. 임종 직전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다. 내 앞의 둥근 흰빛이 마침내 꺼져버리고 나의 숨도 정지되어 암흑, 무(無), 절멸의 상태이다.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죽은 나'를 보고 느끼는 '깨어있는 나'가 있다. 나는 그런 상태로 내 몸 하나 통과할 정도의 좁고 어두운 터널 같은 통로를, 헤아리기 힘든 알 수 시간동안 헤치며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죽음 후의 암흑, 숨 없는 사후세계이며, 나는 '죽은 자'이며, 그러나 이상하

72) '초록색' 확충(amplification) : 초록색의 상징에 대해 융은, "기독교 심리학 영역에서 초록색은 '정액의, 생식의' '낳는, 만들어내는, 생식력 있는' 특성을 가지며, 이런 이유로 초록색은 '창조적인 원리로서의 성령'의 속성에 해당되는 색이다. 또한 초록색은 '출산(생식)'의 색이며 '부활'의 색이다."라고 하였다. 연금술에서 녹색은 '완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금술사 Arnaldus de Villanov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녹색은 황금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금은 보통의 금이 아니다. 녹색은 진짜의 금으로 곧 변화되어지기 때문이다." 초록색의 상징은 연금술에서는 '은총 입은 축복받은 초록'으로, 그것은 정신의 변환의 상(像)들 사이를 헤매며 방향하던 누군가가 '그와 그의 고독 사이를 화해시켜줄 어떤 비밀스러운 행복과 조우'한 것 같은 상태이다. 그 자신과 친교함으로써 그는 '내면의 동반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비밀스런 사랑의 행복과도 같은' 미래의 수확(풍작)의 약속을 손 내밀며, 불모의 메마른 땅으로부터 씨앗의 초록의 싹을 틔우는, 감추어진 봄(Spring)과도 같은 상태이다. 초록색은 만물에 비밀스럽게 내재하고 계신 신성(神性)의 영(Spirit)이다. Jung. CG.(1955) :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London, pp432-433.

게도 동시에 그 곳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 나아가는 통로(産道) 같기도 하다. 나는 태어나기 직전의 상태로,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산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중인 듯 하다. 그리고 갑자기 내 앞의 검은 어둠으로부터 희고 눈부신 둥근 빛의 불꽃이 평하고 터지더니 눈부시고 밝디밝은 구(球) 형의 흰빛이 나에게로 내 몸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그 순간 구원과도 같은 ‘첫 숨’ ‘생명의 숨’이 내 몸 속으로 밀려들어온다. 환해진다. 구원을, 큰 기쁨을 느낀다. 죽었던 내 몸에 생명의 기운과 환한 빛이 차오르며 나는 새롭게 살아나 다시 태어나고 있다.

꿈 7) 나는 내 몸을 내려다본다. 내 몸은 물에 잘 개어 반죽하여 내 몸의 형태로 초벌로 빚어놓은 듯한, 반액체 반고체 상태의 물기 촉촉한 흰색 석회반죽 같다. 내 몸이 어떤 존재*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고 있다. 목소리가 있다. “몸이 지쳐 힘들 때 / 흰 반죽으로 녹아(되어) 지며 / 가슴이 슬플 때 / 새롭게 빚어진다.”

꿈 8) 신(神)의 목소리처럼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목소리가 나에게 말한다. “네가 지금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그 말은 다음의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다. “네가 살면서 너의 몸, 너의 삶, 너의 체험이라고 느끼는 많은 현상들이 사실은 영혼이 너의 몸, 너의 삶, 이 세상 속에서 겪어가고 느끼고 있는, 영혼의 이야기들이며 드라마들이기도 하다.” 나는 충격을 느낀다.

꿈 9) 나는 우리들과 함께 다시 ‘그 틈’⁷³⁾에 이르러 있다. 나는 언젠가 그 넓은 틈을 극복하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와 있던 상태였던 듯, 지금 나는 저 편에서 만난 그들-우리들을 데리고 저 편으로부터 이 편으로 건너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그 틈’에 도착해보니, 매우 놀랍게도, 예전에는 건널 수 없이 그렇게 두렵고 절망적이던 그 넓고 깊은 틈이 참으로 많이 좁혀져 있다. 나와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보폭을 넓게 디디며 저 편으로부터 이 편으로 함께 건너오고 있다.

꿈 10) 나는 길을 가고 있다. 이정표처럼 생긴 곳에 흰 종이가 드리워져 있다.

73) 여성A의 꿈 3)에서 ‘멀어서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편과 저 편 사이 틈...’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던 그 틈.

흰 종이에 적혀(그려져) 있는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내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전하라고 한다. 흰 종이에 적혀(그려져)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나의 모습을 한 10대 후반-20대 초반의 한 여인이 있다. 그녀는 좌측 저편을 향해 몸을 돌린 채 걸어가고 있다. 그녀가 향하고 있는 곳은 저 편-어둠-죽음-바다-고향-근원-태고의 영역이다. 그녀의 얼굴은 어둡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가 향하고 있던 바로 그 곳으로부터 기적과도 같은 어떤 기운, 생기, 빛이 그녀의 몸 속으로 들어온다. 불어 넣어진다. 그러자,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던 어둡던 그녀의 몸은 기적과도 같은 밝음, 빛, 반짝임, 생기로 가득 차오르며, 이제 그녀는 몸을 돌려 우측을 향해, 세상과 삶을 향해, 현재와 미래를 향해, 기쁘고 의연하고 생기 있게 걸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녀의 몸에 빛과 생기를 가득 담은 채로...> <2. 그녀가 1.과 같은 고난과 과정을 겪게 되는 이유, 목적, 사연은 다음과 같다. 존재*⁷⁴⁾가 자신의 오래고 오랜, 높고 매우 높은, 과거의 역사를 그녀에게 알리고, 알게 하고, 보여주고, 보게 함이다. 그녀가 어두운 얼굴로 왼쪽 저 편, 어둠과 죽음을 마주하고 있던 그 시간이 바로 존재가 자신의 길고 오랜 역사를 그녀에게 알리고 보여주는 그 시간이며, 그리고는 높고 높고 오래고 오랜 존재*가 그녀를 통해, 그녀의 몸을 통해, 그녀 속으로, 그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녀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워져, 어리고 젊은 존재*로 거듭 나게 된다. 바로 이 순간이, 어둡던 그녀의 얼굴에서 기적과도 같은, 신적(神的)인, 치유의 빛과 생기가 가득 차오르는 순간이다. 이제 그녀는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자식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와 함께, 신적인 치유의 빛과 생기를 그녀 안에 담고, 우측⁷⁵⁾을 향해, 현재와 미래를 향해, 세상과 삶 속으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가, 그녀가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을 그녀가 서 있는 길목을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한다. 가르치고 치유한다.> 나는 1.과 2.의 내용을 놀람과 충격 속에서 읽고 또 읽는다.

몹시 그리워하던 '님'의 현존과 접촉하게 되는 순간, '님'의 손으로 만진 그녀의 두 발에서 아름다운 시어(詩語)가 샘물처럼 솟아나오며 시와 노래가 온 몸에서 터져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내림곳'의 '신내림(강신체험)'과 '말문'과 '공

74) 초월적 존재, 그녀 안의 신(神), 그녀 안의 창조주.

75) 의식으로 실현하는 방향.

수,⁷⁶⁾ 12세기를 살았던 여성 기독교 신비가이자 수녀원장이며 시인이었던 빙엔의 힐데가르트(1098~1179)의 환상과 종교체험, 그리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창조적인 시(詩)들과 저작들, ‘기탄잘리’라는 아름다운 시를 노래한 시성(詩聖) 타고르의 신(神)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신(神)과의 합일(合一)의 황홀한 순간들을 시와 노래로 부른 수피 신비주의 시인들, 신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노래한 까비르의 시(詩)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⁷⁷⁾

A의 꿈을 해석하지 않으려 한다. 아름다운 시(詩)처럼, 이상하고 신비한 옛날이야기처럼, 그녀의 꿈과 환상 속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빛(*lumen naturae*)에 고요한 마음으로 귀기울이고자 한다.

제 3장 : 개인의 꿈들과 일부 예술작품(소설, 영화)에서 보이고 있는 ‘어둠의 남자(뱀파이어, 좀비)’상(像)의 변환 및 그 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고찰

개인의 꿈들과 영화 ‘드라큘라’ ‘트와일라잇 시리즈’ ‘웬바디스’ 등을 조명해 보면서, 일부 개인의 꿈들과 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소설, 영화 등의 일부 예술작품에서 ‘어둠의 남자(뱀파이어, 좀비)’의 상(像)에 변환이 있으며, ‘어둠의 남자’가 인간인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이 결실을 맺기도 하며, 또한 ‘어둠의 남자’에 대한 의식의 자아의 태도와 상호 관계양상에 있어서도 매우 인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현금의 이와

76) 강신자(降神者)가 신(神)이 실려서 처음 신어(神話)를 말하는 과정.

77) 이부영(1969): “입무과정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 pp111-122.

_____(1982): “한국무속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서울: pp147-178

_____(1984): “민간신앙과 집단적 무의식”, 《대동문화연구총서》, 제2집, 서울,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pp97-118

_____(1990): “‘내림굿’ 과정의 심리역동과 그 정신치료적 의미에 관한 분석고찰”, 여성 일 《신경정신의학》 29(2): pp471-501

_____, 김열규, 김태곤, 이광규, 이상일, 이희덕, 장덕순 공저(1976): “귀령현상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특히 한국무속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의원천》, 박영사, 서울

박희진 옮김(2002): 타고르, R, 《기탄잘리(노래의 봉헌奉獻, 神에게 바치는 송가)》, 현암사

황광우 옮김(1996): 요소 라즈니쉬 까비르 강의, 《손님 : 까비르는 神을 손님이라 부른다》, 정신문화사

같은 현상에 대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변화는 그 개인 및 이 시대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그 개인 및 시대에 어떤 작용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숙고해 보았다.

다음의 꿈 S는 본 논문 제 1장과 제 2장에서 이미 소개한 31세 여성 스테프니 메이어의 꿈이다.

꿈 S) 숲 속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왕래가 없는 둥근 풀밭에 밝은 햇빛이 쏟아지고 있으며 두 명의 남녀가 대화에 몰두하고 있다. 남자는 몸에서 빛이 반짝이는 매우 아름답고 매혹적인 청년이며 뱀파이어(vampire)이고, 여자는 10대의 평범한 소녀이다.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서로를 매우 갈망하고 있음을 느끼며 그것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뱀파이어 청년은, 자신이 얼마나 소녀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동시에 자신이 소녀의 피의 냄새의 특별히 끌리고 있으며 당장이라도 소녀를 덮쳐 피를 마시고 싶은 욕구를 참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소녀에게 설명하고자 애쓰고 있다.

스테프니 메이어의 꿈 속에 나타난 '뱀파이어'의 모습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어둠 속의 존재로서의 '뱀파이어'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 어둠 속이 아닌 밝은 햇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인간 소녀 또래의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 햇빛 아래에서 빛이 반짝이는 몸을 드러낸 '뱀파이어 청년'의 모습은 너무도 생생하고 인상 깊어 스테프니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각인을 남기게 되었으며, 스테프니의 존재를 뒤흔들고 인격과 삶을 창조적으로 변환시키게 되는 누미노스한 충격을 주게 되었다. 인간 소녀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동시에 인간 소녀를 덮쳐 피를 마시고 싶은 욕구를 가진, 빛이 반짝이는 몸을 가진 어둠의 존재 '뱀파이어'의 청년의 상(像)은, '빛'과 '어둠'의 대극적 요소를 한 몸에 지니고 있다. 자연의 빛(lumen naturae)을 담고 있는, 스테프니의 무의식적 인격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의 꿈들은 제 2장에서 소개한 44세의 여성A의 꿈이며, 제 2장에서 소개한 꿈1-꿈10과 거의 동일한 기간에 걸쳐 꾸게 된 일련의 꿈들이다.

꿈 B1) 드라쿨라에 관한 자료가 있는 도서관이다. 그 안의 사람들 사이에는 드라쿨라들도 섞여있다. 드라쿨라처럼 보이는 얼굴이 창백하고 표정이 섬찔한 젊

은 남자가 내게 은밀한 눈짓을 하고 지나간다. 도서관 내부의 책들은 모두 드라쿨라와 관련된 서적들이다. 진열대 위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꼭 볼 수 있도록, 보통 책의 수 배는 될 듯한 크기와 두께의 큰 책들이 펼쳐져 있다. 겉장에는 드라쿨라의 이름(본명)이 쓰여져 있고, 그가 오랜 세월동안 살던, 돌로 쌓아 지어진 지하감옥 혹은 은둔처가 그려져 있다. 드라쿨라 백작의 본명과 그가 살던 감옥 혹은 은둔처를 그림으로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해오며, 그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듯한 느낌이 느껴진다.

꿈 B2) 검은 망토를 걸친 드라쿨라 느낌의 그 남자가 나를 추적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그를 피할 길이 없다. 내 앞에 양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을 한, 양 손 끝으로부터 고운 초록색 잎들이 돋아 오르고 있는, 십자가 형상의 나무가 땅에 박혀있다. 내가 이 '십자가 형상의 나무⁷⁸⁾'의 두 팔에 안기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죽음⁷⁹⁾이며 동시에 이 검은 망토의 남자로부터의 길고 오랜 추적과 도망다남의 끝(결말)⁸⁰⁾이라고 한다. 나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저항이 생기고 속이 상하다. 그러나 피할 수 없으므로 나는 마침내 죽음을 받아들이고, 양 팔을 벌린 사람 형상의 십자가 나무의 품으로 다가가 안긴다.

꿈 B3) 어떤 존재*에 의해 나는 땅 속 지하 세상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라는 근무지 이동 발령을 받는다. 나는 새로 발령 받은 근무지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난다. 혼자이면서 동시에 함께 가고 있음을 느낀다. 지상의 길이 끝나며

78) '나무' 확충(amplification) : 나무는 '생명(삶)의 과정'이며, 동시에 '의식성의 발달(깨달음)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나무는 '전체성'의 상징이며, '자기실현' '개성화 과정'을 상징한다. 나무는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사위일체' 그리고 '대극합일'의 상징이다. 전체가 되는 것, 전체성은 치유의 효과를 발하게 된다. 나무는 중세 연금술 문헌에서 비밀의 물질의 성장, 그리고 '현자의 금(philosophical gold)으로의 변환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금으로의 물질적 변환'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자신에 대한 앎(Self-knowledge)'이며, 이것은 'homo totus(전체로서의 인간)를 상기(기억)해 밤'을 의미한다. '神(하느님)'이 나무의 성장으로 상징되어지는 작업의 전 과정의 결실인 현자의 나무의 열매로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작업의 목표는 피지스(육체)의 속박으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영(靈) 하느님, 세계혼(anima mundi)을 해방, 구제, 분만시키는 것이다. Jung, CG.(1967) : CW 13, "The Philosophical Tree", *Alchemical studies*,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London, pars354, 355, 363, 372, 404, 413.

79) 나의 죽음 ; 의식의 자아 중심의 아집과 독선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80) 검은 망토를 입은, 드라쿨라 느낌의 어둠의 남자가 그녀를 오랜 세월동안 추적해 온 것은, 그녀로 하여금 그녀자신을 알게 하고 그녀의 전체를 알게 하고 그녀의 전체가 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땅(지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원형이며 사각형인 두터운 흰 돌(石) 판으로 만들어진 문이 있다. 돌로 된 문을 들어 올리니, 땅 속의 모습이 보이고 냄새가 느껴진다. 지하무덤 같고, 지하 감옥 같고, 드라큘라들의 지하 은신처 같은, 지상의 세계로부터 백 년도 천 년도 넘는 오랜 세월동안 닫혀있었던 이 곳 지하 세계로부터, 햇빛이 닿지 않은 긴 세월의 짙은 어둠의 냄새, 무덤의 흙냄새, 살아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유령처럼 느껴지는, 내가 진료하게 될 환자들의 냄새가 난다. 새로이 근무하게 될 이곳으로 들어감에 의사로서의 소명감을 느낀다.

꿈 B4) 나는 좁고 어두운 나선계단을 올라가다가 나선계단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30대 나이의 한 남자와 마주친다. 그는 어둠의 남자 드라큘라 같다. 난 몹시 놀라 그로부터 피하기 위해 방향을 돌려 나선계단의 아래를 향해 내려가다가 작은 문(門)을 만난다. 문 저 아래로는 어둡고 괴괴한 지하실이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실 저 아래가 드라큘라 남자의 거처이다. 내 몸 속 깊은 곳, 알 수 없는 원천으로부터, “저 아래 어둠 속으로 내려가 보아라! 드라큘라 남자를 만나보아라!”라는 울림이 있다. 얼마간 갈등하다가 안전한 듯 밝은 듯한 다른 곳으로 피신한 나는, 잠시 안도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만나야 하는 어떤 상황(존재)을 피해 여기 이렇게 피신해 와 있다는 꺼림직함, 비겁함, 떳떳하지 못함을 느낀다. 그 순간! 몹시 놀라고 충격스럽게도, 드라큘라 느낌의 어둠의 남자는 어느새 이미 내 몸 속에 들어와 있다! 내 몸 속에 들어온 그는 내 왼쪽 얼굴 부위와 내 왼쪽 허반신(허리-엉덩이-다리) 부위에 자리하고는 나를 부르고 있다! 절규에 가까운, 말이 아닌 이상한 기운으로 나를 부르고 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도 낯설고 두려운 통증으로 느껴져와, 그가 나를 부를 때 마다, 저 멀리 어딘지 모를 곳 우주 저 편 깊은 어둠 속으로부터, 내 좌측 얼굴과 좌측 허반신을 향해 통증(고통)이 밀려든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가 내 몸 속에서 나를 부를 때 느껴지는 낯설고 두려운 통증은, 아기를 낳을 때 느꼈던, 분만 직전의 그 두렵게 밀려오던 진통과 참으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꿈 B5) 내 집에 어떤 남자가 들어와 벌써 한 달 째 가지 않고 머무르고 있다. 그는 내 집에서 계속 나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내게 어린아이처럼 어리광부리며, 춥다고 창문을 닫아달라고도 하고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고도 한다. 나는 그가 내게 바라는 대로 해주면서도 그를 보살피는 것이 다소

간 힘들고 부대끼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니 의견이 분분한데, 그가 나쁜 남자라고도 하는 것 같다. 그는 크고 건장한 체격에, 근육질의 탄탄하고 건강한 몸과 거무스름한 피부와 두터운 입술을 가졌다. 힘도 세고 몸이 날렵하고 민첩하며 싸움도 잘할 것 같은 야성이 느껴지는 30대 나이의 남자이다. 인간의 피를 마시며 인간을 무차별적으로 해치는 다른 뱀파이어들로부터 인간을 지켜 주고 돕고자 하며, 인간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가는 어둠의 남자, 뱀파이어의 모습을 하고 있다.

검은 망토를 입은, 드라큘라 느낌의 어둠의 남자가 오랜 세월 동안 여성A를 추적해 온 것은, A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자기 자신의 전체로서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A는 어둠의 존재가 자신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직관과 어둠의 존재에 대해 연민하는 따스하고 수용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다. 무의식을 의식화 하고자 하는 의식의 자아의 성실하고 기꺼운 노력이 있었으며, 어둠의 남자는 이제 A의 의식된 실존과 A의 삶을 통해 A와 의식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의 삶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뱀파이어 모습을 한 어둠의 남자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으며, 일부 무의식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A를 보호하고 돕고자 한다.

A의 몸 속으로, 의식된 실존 속으로, 빛*⁸¹⁾의 존재가, 그리고 어둠*⁸²⁾의 존재가 들어온다. 빛과 어둠이 함께 A의 의식화된 인격과 이 세상의 삶에 함께 참여하고 동반하고자 한다.

‘뱀파이어’는 전설, 신화, 민담 등 옛날이야기에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무덤에서 일어나 인간의 피를 마시고 살아나는 존재로 공통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사는 불사(不死)의 존재로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초인간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파이어’는 인간이 되고 싶어한다. 서양 중세 기독교에서 철저히 배척한 어둠과 악의 요소를 담고 있으며, 신(神)의 어두운 측면 혹은 자기(Self)⁸³⁾⁸⁴⁾의 어두운 측면을 상징한다고 볼

81) 본 논문 제 2장의 여성A의 꿈 10).

82) 본 논문 제 3장의 여성A의 꿈 B4).

83) 1955년 어떤 프랑스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융은, “우리는 자기(Self)의 상징들을 경험한다. 그것은 신(神)의 상징들과 구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C.G. Jung. Briefe, III, p503.

84) <자아와 무의식과의 관계>에서 융은 자기(Self)를 우리 속의 신(神)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C.G. Jung, Die Beziehungen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ssten, p134.

수 있다. 부성상(Father imago) 혹은 아니무스의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개인의 의식적 인격과 삶 속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나, 아직은 의식의 자아에게 그 존재 있음이 알려지지 않아, 의식의 자아에게 무의식적인 상태로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본래 개인의 전체정신(전체성)에 속하는, 소외된 정신적(심리적) 요소들의 삶(生)에 대한 갈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처음 '뱀파이어'가 영화 속에서 강렬한 인상을 전했던 것은 1922년 F.W. 무르나우 감독의 '노스페라투(Nosferatu, A Symphony Of Terror)'일 것이다. 이 영화 속에서 '뱀파이어'는 창백하고 구부정하며 길게 자란 뾰족한 손톱을 가진 흉측하고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형상을 취하고 있다. 결코 사람들 속에서 어울릴 수 없는 외형을 지녀 누구나 꺼리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묘사되었으며, 자신이 살기 위해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의 피를 마셔야만 되는, 인간과의 교감(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간과 공존할 수 없는, 무서운 적이며 악마적인 괴물로 그 형상이 그려지고 있다. 이후, 1958년 '드라큘라(Horror of Dracula)'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드라큘라 백작이 등장하게 된다. 이 때부터 뱀파이어는 강렬한 붉은색과 검정색이 대비되는 망토를 걸치고, 생명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죽음과 생명의 끝을 상징하는 검정색의 대조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양가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도 여전히 인간은 초인간적인 권능을 가진 드라큘라 백작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를 빼앗기고 희생되는 존재이며, 드라큘라 백작 역시 인간의 피를 갈망하며 인간의 피를 마시고 마셔도 그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고 구원되지 못한 채 영겁의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1992년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Francis Ford Coppola) 감독의 '드라큘라(Dracula)' 영화를 통해, 드라큘라가 불멸의 데몬이 되게 된 사연을 들으면서 그의 감정과 의식에 귀 기울이게 된다. 이 영화를 계기로 '뱀파이어'를 소재로 다루는 영화 속 시각은 '인간과 대치되는 적'에서 점차 '의식과 내부 갈등을 가진 존재'로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 배우 게리 올드만이 그 배역을 맡은 드라큘라 백작은, 때로는 괴수(야수)의 모습으로, 때로는 새하얀 머리카락을 틀어올리고 붉은 망토를 길게 늘어뜨린 나이를 헤아릴 수 없이 늙디 늙은 초인간적이고 악마적인 모습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피를 마시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두렵고 파괴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아 ‘뱀파이어’가 되기 전 자신의 첫사랑 여인과 닮은 한 여성(위노나 라이더 분)과 조우하여 사랑에 빠지게 되는 순간,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자 그는 젊은 인간 남성의 모습이 되어 그녀를 만나러 가게 되고, 그녀를 매우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이 깊어지게 됨으로써, 그녀의 피를 마시고 싶은 참기 어려운 욕망을 자제할 수 있게 된다. 그녀도 차츰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피를 그에게 주어 그와 함께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게 되는 고통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게 된다. 권능과 초자연적인 힘을 지니고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사는 불사의 신적(神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드라큘라는 인간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야수 같기도 하고 어두운 신(혹은 악마) 같기도 한 두렵고 괴괴하고 혐오스러운 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심을 느끼고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한 여인에 의해 그는 구원된다. 또한 예전에는 어둠과 악 그 자체이며, 기피의 대상으로만 묘사되던 ‘뱀파이어’는 앤 라이스(Anne Rice)⁸⁵⁾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1994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Interview with the Vampire)’를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소개된다. 이 영화에서 우리는 무분별한 공격성을 대표하던 ‘뱀파이어’가 고뇌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간보다도 더 의식이 깨어있기도 한 모습을 대면하면서 놀라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본 발표의 도입부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아 글로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자신의 생생한 꿈을 글로 옮김으로써 잉태된 스테프니 메이어의 소설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 ‘트와일라잇’ 시리즈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트와일라잇’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인간의 피를 마시고 싶은 갈증을 억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소망하는 높은 의식성과 인간미를 가진, 아버지인 의사를 리더로 하는, ‘뱀파이어’ 일가족이 등장한다. 햇빛에 노출되면 몸이 타서 죽게 되므로 어둠 속에서만 머물러야 했던 과거의 ‘뱀파이어’들과는 달리, 그들은 햇빛이 비치는 시간에도 인간과 함께 지낼 수 있으며 인간과 공존할 수 있다. 햇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빛을

85) 앤 라이스(Anne Rice) : 1941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 작가. 1976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를 처녀작으로 출판하면서 본격적인 저술 작업을 시작하였다.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는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며, 영화배우 탐 크루즈와 브래트 피트가 뱀파이어로 분했다.

발하는 몸이 드러나는, 초인간적이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젊은 '뱀파이어' 남성(로버트 패틴슨 분)이 한 인간 여성(크리스틴 스투어트 분)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순간, 그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그녀의 피를 갈망하고 있는 심한 목마름을 느끼며 갈등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와의 사랑을 가꾸어가고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끼면서, '뱀파이어'인 그는 그녀를 죽이게 될지도 모르는 피의 갈망과 목마름을 억제할 수 있게 되고, '뱀파이어'인 그와의 사랑을 통해 여성은 아버지와 분리되고 자신의 여성성을 더욱 온전하게 분화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마침내 사랑의 결실로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인간 여성과 '뱀파이어' 사이의 자식을 잉태하게 되고,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모진 산고 끝에, 마침내 '인간' 어머니와 '뱀파이어' 아버지의 속성을 한 몸에 지닌 '인간'인 딸을 출산하게 된다. 위 작품들은 출간, 혹은 개봉 당시 큰 세이션을 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건드렸다.

이와 유사한 흐름은 비단 '뱀파이어'에 관련된 영화나 소설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워 무조건 피하고만 싶었던 대상의 하나인 '좀비' 역시 소설과 영화 속에서 그 모습과 속성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좀비'는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버린 움직이는 시체와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 숨쉬는 인간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살아 숨쉬는 인간의 살이라면 무차별적으로 먹어치우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인간을 쫓아가 인간의 살을 허겁지겁 먹는 '좀비'는, 인간으로부터 소외되고 인간이 혐오스러워하는 어둠 속의 존재라는 측면에서, 살아있는 인간의 피를 탐하는 '뱀파이어'와 상징적으로 유사하다. 깊은 어둠 속에 오랜 시간 버려진 채로 있었으나, 본래는 전체정신의 한 부분으로, 이제는 의식된 인격으로 받아들여지고 통합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의식의 인격으로부터 해리된 채 조각나 흩어져 있는 무의식적 인격들의 갈망과 절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식의 자아는 무의식의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혐오하며 소외시키고 있으므로, 그들은 더욱더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분노하며, 마침내 의식의 영역으로 침입해 들어와 의식을 교란하고 자아를 사로잡게 된다.

초창기 좀비 영화의 대명사로는 1990년 톰 사비니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 영화에서 '좀비'는 인간의 육신만을 오로지 탐하

며 인간을 공격하는, 인간과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된다. 시체 같은 느낌을 주는 그로테스크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있는 인간의 몸을 찾아 무리지어 다니며, 살아있는 인간의 생살과 내장까지 모조리 먹어치울 정도로 몹시 허기진,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존재. 이것이 초기 작품들에서 보이는 ‘좀비’의 정형화된 이미지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좀비’는 호러 장르의 일약 아이콘으로 성장하더니, 알렉스 갈랜드가 각본하고 대니 보일이 감독한 2002년 ‘28일 후’에서는 좀비에 대한 예술적 시각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영화에서는 ‘좀비’를 단지 공포 그 자체이며 파괴적인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독선적인 오만함과 폭력성에 의한 상대적인 희생양으로서 조명함으로써, 좀비와 인간의 극단적인 대립구도로부터 탈피한다. 당시 이 영화는 비평가들과 대중의 호평 속에서 여러가지 상을 수상하였다.

가장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2012년 조나단 레빈 감독의 ‘웜바디스(Warm Bodies)’⁸⁶⁾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웜바디스’에서의 ‘좀비’는 사랑의 메신저로 로맨틱한 변신을 하게 되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좀비들의 세력이 강해지고 좀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많은 인간들이 좀비들의 공격을 당해 먹이가 되고, 살아남은 소수의 인간들은 좀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리더인 무장군인이 지키고 있는 격리된 구역에서 생활한다. 좀비와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공존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상황으로 영화가 시작된다. 이러한 상황은, 의식과 무의식이 해리되고 무의식은 의식으로부터 점점 더 소외되어, 무의식의 내용들은 점점 더 어둡고 악하고 흉측하며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한 개인의 그리고 편향된 시대의 노이로제를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다.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의 애인의 뇌를 먹은 주인공 남자 좀비(니콜라스 홀트 분)은 여주인공 줄리(테레사 팔머 분)의 남자친구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던 여주인공에 대한 사랑의 추억을 알게 되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됨으로써 여주인공을 단순한 먹이감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느끼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 좀비R의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차갑게 굳어있던 몸에 피가 돌고 온기가 느껴지게 되며 시체 같았던 그의 모습이 점차 살아있는 인간 청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86) 영화로 만들어진 ‘웜바디스’의 원작 소설의 작가인 아이작 마리온(Isaac Marion)의 삶과 작품 ‘웜바디스’의 창작 과정이 본 논문 제 2장에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좀비R은, 끝까지 그를 믿지 못하며 그를 죽이려 하는, 인간을 지키는 군대의 통솔자(대장)인, 연인 줄리의 아버지(존 말코비치 분)의 군인들이 쏜 총탄에 맞아, 마치 살아있는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고 피를 흘리게 됨으로써, 자신이 이제 고통을 느끼고 피 흘릴 수 있는 인간이 되었음을 실감하며 기쁨으로 감격하게 된다. 좀비R을 끝까지 죽이려 했던, 인간을 지키는 군대의 통솔자인 줄리의 아버지는, 무의식을 의식의 적(敵)으로만 보고 무조건 억압하고 소외시키고 없애고자하는, 한 개인 혹은 집단의식의 독단적이고 획일적인 경직된 태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주인공 줄리와의 사랑을 통해 인간이 된 좀비였던 R은 마침내 줄리의 아버지와 인간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꽤 많은 수의 다른 좀비들 역시 R과 유사한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흥측하고 파괴적으로 보이는 어둠의 존재에게 향한, 가슴이 따스하고 수용적이며 깨어있는 의식성과 분별력을 가진 한 인간 여성의 연민과 사랑과 용기와 결단이 어둠 속의 존재, 좀비를 구원하고 인간이 되게 하였으며, 경직된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고 공공연하게 인간세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이 영화는 우리가 꿈 속에서 혹은 외부 현실에서 조우하게 되는 어두워보이고 악하게 보이는 미지의 대상(상황)과의 조우에서, 의식의 자아가 한편으로는 분별력을 가지고 관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의식과 무의식 간의 대화, 무의식의 의식화, 의식과 무의식의 합성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의식과 무의식이 합성되고 인간이 자신의 전체성에 가까이 접근하여 보다 온전한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은 치유와 구원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의 존재와 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되며 지금 이 순간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 영화는 젊은 남성 작가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이다. 따라서 시체 같은 상태로 살아가던 '좀비'가 한 인간 여성과 사랑에 빠지고 사랑하게 됨으로써,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고 몸 속에 피가 다시 돌아 따스한 체온을 회복하고 잘생긴 인간 청년으로 변하게 되며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 이야기는, 자신의 무의식과 단절되고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채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던 한 남성이, 자신의 내면 무의식과 조우하고 자신의 영혼(아니마)과 조우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의식과

무의식의 합성과정, 즉 인격의 창조적 변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는 현금 이 시대 사람들의 존재의 심층을 울리며 깨어나고 있는 공통 신화소를 보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아닌 존재’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저편 세상의 존재 ‘소외된 어둠 속의 존재’와 인간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자 하며 사랑하게 됨으로써, 인간이 아닌 존재는 인간이 되거나 인간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며, 인간은 인간이 아닌 존재와의 우정과 사랑과 결혼을 통해 얻기 힘든 귀한 보물을 얻기도 하고 자식을 낳게 되기도 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산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주제의 결말은 행복한 결말이 될 경우 양측 존재 모두의 구원, 치유, 그리고 영원한 사랑과 결혼 등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이러한 신화소를 민담 ‘미녀와 야수’ ‘구렁덩덩 신(神)선비’ ‘아모르와 프시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나가는 말(결어)

본 논문에서 저자는 ‘창조적 충동’이라는 용어를 ‘창조’를 일어나게 하는 충동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창조적 충동’에 의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창조적 충동’은, ‘내향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안으로 일어나는 인격의 창조적 변환으로 실현될 수도 있으며, ‘환상적 창작’ 혹은 ‘외향화’ 과정을 통해 개인의 밖으로 일어나는 예술적 창조인 ‘작품’의 출산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때로는 내향과 외향, 양 쪽 방향으로의 실현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기도 함을 볼 수 있었다. ‘창조적 충동’은 그것이 개인에게 처음 체험되고 개인에게 그 의미가 드러나기 전에는, ‘영의 가난함(poor in spirit)’ ‘그리움’ 같은 간절히 찾아 헤매며 갈구하는 마음의 상태나 ‘우울’ ‘불안’ ‘두려움’ 같은 정서적 고통으로 체험되기도 하며,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나 ‘성적 충동’과도 같은 본능적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체험되기도 한다. ‘창조적 충동’은 환상이나 꿈을 통해 상징(像)으로 나타나고 표현됨으로써 의식의 자아에게 그 의미가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기도 함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례에서는 개인이 인생의 전기(轉機)를 맞아 ‘원형적인 꿈’을 체험함으로써 누미노스한 것과 접촉하게 되었으며 ‘창조적 글쓰기’의 형태로 개인을 사로잡은 ‘창조적 충동’과 조우하게 되었다. ‘창조적 글쓰기’가 ‘적극적 명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사고와

진통 끝에 태어난 작품은, 개인의 꿈의 기록이며 꿈에서 시작한 ‘적극적 명상’ 과정으로서, 의식과 무의식의 공동 작업에 의해 창조되고 탄생된 작품이 되었으며, 또한 의식의 자아가 내면의 무의식을 의식화해나간 개인의 인격의 창조적 변환 과정의 상징적 기록이 되었다. ‘원형적 꿈’의 체험을 통해 의미가 드러나게 되기도 하는 ‘창조적 충동’은, 인간의 내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개인의 실존의 경계 너머의 심층에 자리하는 미지의 시공(時空)으로부터, 미지의 존재*⁸⁷⁾로부터 오게 됨을 볼 수 있었다. ‘창조적 충동’은 ‘신(神)의 의지’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될 수도 있으며, ‘창조주’ 혹은 신(神)이 주재하는 ‘창조’의 과정은 ‘자기원형’이 주재하는 ‘자기실현’ 과정이나 ‘개성화’ 과정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될 수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창조적 글쓰기’에 의한 작품의 출산이 의식과 무의식의 합성 과정에 의한 ‘인격의 창조적 변환’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에는, 도래한 ‘창조’의 내적 필연성을 절실하게 느끼며 자유의지로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자아의 진지한 자세와 성실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집단적 무의식’이라고도 부르는 인간의 마음 심층(深層), ‘자연의 빛(lumen naturae)’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창조적 충동’이 ‘창조적 글쓰기’를 통해 ‘작품’으로 출산될 경우, 시대의 인연과 닿아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게 됨으로써, 개인과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치유와 구원의 작용을 가져오게 되기도 함을 볼 수 있었다. 영화 ‘트와일라잇’ 시리즈와 ‘월바디스’에 이르는 ‘어둠의 존재’의 긍정적인 변환은 개인과 시대의 ‘의식성의 발달과정’이고 ‘의식과 무의식의 합성’ 과정이며, 그리워하고 있던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 하나되고 전체가 되는 ‘영원한 사랑’의 과정이며 ‘융합의 비의(Mysterium Coniunctio)’의 과정임을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박혜경(1996) : “몸으로 글쓰기-엘렌스 식수스 ‘글쓰기로 나아가기’를 중심으로”, 《프

87) *의 표시는 때로는 꿈 속에서 조우하게 되기도 하는, ‘신(神)’과도 같이 체험되는 초월적인 존재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이다. 1955년 어떤 프랑스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융은, “우리는 자기(Self)의 상징들을 경험한다. 그것은 신(神)의 상징들과 구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C.G. Jung, Briefe, III, p503.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에서 융은 자기(Self)를 우리 속의 신(神)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C.G. Jung, Die Beziehungen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ssten, p134.

- 랑스 소설 속의 여인들을 찾아서», 여성신문사, 서울, pp227-240.
- 박희진 율김(2002) : 타고르. R, 《기탄잘리(노래의 봉헌, 신에게 바치는 송가)》, 현암사.
- 용 CG(한국용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 역)(2002) : 용 기본 저작집 3권, 《인격과 전이》, 솔 출판사, 서울.
- _____ (2008) : 용 기본 저작집 9권, 《인간과 문화》, 솔 출판사, 서울.
-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이부영*분석심리학 탐구3》, 한길사, 서울.
-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C.G.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서울.
- 이부영(2001) :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부영*분석심리학 탐구2》, 한길사, 서울.
- 이부영(1969) : “임무과정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 pp111-122.
- _____ (1982) : “한국무속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서울, pp147-178.
- _____ (1984) : “민간신앙과 집단적 무의식”, 《대동문화연구총서》, 제2집, 서울,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pp97-118.
- _____ (1990) : “‘내림굿’ 과정의 심리역동과 그 정신치료적 의미에 관한 분석고찰”, 우성일 《신경정신의학》 29(2) : 471-501.
- _____, 김열규, 김태곤, 이광규, 이상일, 이희덕, 장덕순 공저(1976) : “귀령현상의 분석심리학적 고찰-특히 한국무속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의원천》, 박영사, 서울.
- 황광우 율김(1996) : 오쇼 라즈니쉬 까비르 강의, 《손님 : 까비르는 신(神)을 손님이라 부른다》, 정신문화사.
- Anne Rice(2010) : Article on The Huffington Post, ‘Anne Rice : I quit being a christian.’ by Kunhardt, Jessie.
- _____ (2010) : Article on CNN Entertainment, ‘Anne Rice leaves christianity’.
- _____ (2010) : Article on USA TODAY, ‘Novelist Anne Rice ditches christianity for Christ’ by Grossman, Cathy Lynn.
- _____ (2013) : from the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Anne_Rice.
- Chas Newkey-Burden(2010) : *Stephenie Meyer, queen of twilight, The Biography*, John Blake Publishing Ltd, London.
- Isaac Marion(2013) : Article on The Seattle Times, ‘Isaac Marion’s “Warm Bodies”, in theaters this Friday, is a portrait of zombie/human love’ by Tom Keogh.
- _____ (2013) : ‘Frequently Asked Questions’ www.burningbuilding.com (personal website of Isaac Marion).
- _____ (2009) : Interview with The Black Letters, ‘Some words with Isaac Marion’.
- _____ (2013) : Interview with National Geographic Society ‘Interview with “Warm Bodies” author Isaac Marion’ by Tara C. Smith.
- _____ : Life expectancy’ www.burningbuilding.com (personal website of Isaac Marion).

- _____ (2008) : Review from The Black Letters, 'The Inside, by Isaac Marion.
- _____ (2013) 'The New Hunger' www.burningbuilding.com (personal website of Isaac Marion).
- Jung CG**(1967) : CW 13, "The Philosophical Tree", *Alchemical studies*,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London.
- Jung CG**(1955) : CW 14, *Mysterium coniunctionis*,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London.
- Marc Shapiro**(2009) : *Stephenie Meyer, The Unauthorized Biography of the Creator of the Twilight Saga*, St. Martin's Griffin, New York.
- Stephenie Meyer**(2005) : Interview with a Motley vision, 'Interview: Twilight author Stephenie Meyer', by William Permalink.
- _____ (2005) : Interview with school library journal 'Love at first bite' by Margolis, Rick.
- _____ (2007) : Interview with The New York Times, 'Children's books/Young Adult' by Liesl Schillinger.
- _____ (2007) : Interview with Little Brown Books on the YouTube video, Stephenie Meyer Talks About Twilight, New Moon, and Eclipse.
- _____ (2007) : Interview with The New York Times, 'Children's books/Young Adult' by Liesl Schillinger.
- _____ (2008) : Interview with collider 'Stephanie Meyer Interview TWILIGHT', by Frosty.
- _____ (2008) : Interview with CBS Sunday Morning television.
- _____ (2008) : Interview with 'Sheknows', 'Stephenie Meyer talks twilight'.
- _____ (2009) : Interview with Courier-Mail, by Gillian Cumming.
- _____ (2009) : Interview with Paris Match, 'New Interview With Stephenie Meyer'.
- _____ (2007) : Press conference with Phoenix New Times, by Megan Irwin.
- Von Franz ML**(1995) : *Creation Myths*, Shambhala, Boston & London.
- Von Franz ML**(1993) : "The Religious Dimension of Analysis", *Psychotherapy*, Shambhala, Boston & London.

Shim-Sŏng Yŏn-Gu 2013, 28 : 1

〈ABSTRACT〉

**Healing Effect of ‘Creative Writing’ on Individual and
on Our Age**

– Focused on the ‘Man of Darkness (Vampire)’ Symbol –

Kye-Hee Kim, M.D., * Ki-Won Kim, M.D., ** Eun-Seun Han, M.D. ***

This article started with ‘encounter’. Both authors met around the middle of February and discussed the subject for the inhospital conference presentation scheduled at the break of June. Having conversation like “Movies similar to fairytales heard from childhood are standing out conspicuously among commercial films which are attracting audiences and receiving fervent response these days. This phenomenon is marvelous and mysterious.” together, and sharing this and that, the conversation turned naturally to ‘Bram Stoker’s Dracula’, ‘Series of Twilight’, and ‘Warm Bodies’, both authors found out the fact that we saw these movies in common with propound impression. Feeling our hearts beating high, bit of fear and hesitation followed simultaneously at the moment when both of us encountered the idea to choose subject of conference presentation related to this and expressed one in words. While preparing for the conference, presenting to others, and having discussion with the audience, our hearts have been filled with Presentation was finished after active discussion beyond fixed hour and it also brought audience (among those present) to show strong emotional response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At first, we just had a thought to put aside the content of presentation, but we felt lack of something else, lingering in our minds. We finally decided to accomplish our work into an article leading to submission, based on the advice and recommendation from one of the audience. This article is a small ‘creative writing’ born by sharing both authors’ passion and enthusiasm.

In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we have introduced the dream of 31-year-old woman’s which led to the ‘creative writing’ and spotlighted her personal life,

before and after the dream. In the second part, we have examined the consequence (way of realization) and meaning of creative impulse shown from or experienced from personal unconsciousness (dream, fantasy) together. Creative impulse shown from the individual appeared to bring creative transformation of individual personality through the process of 'introversion'. Otherwise it also appeared to be delivered as a masterpiece through 'creative writing' or from the process of 'extroversion'. Sometimes both consequences happened at once. We tried to examine and interpret the dream of 31-year-old woman's, which was introduced in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that is to say, the dream of 'Stephenie Meyer's, the author of the 'love between vampire boy and ordinary human girl' themed novel 'Twilight Series', in a psychoanalytic perspective. In the third part, highlighting individual dreams and three different movies 'Bram Stoker's Dracula', 'Twilight Series', and 'Warm Bodies', we found the transformation of symbol 'Man of Darkness, vampire' seen in each individual dreams and in some specific popular arts, such as novels and movies, receiving fervent response from people. We also found love between this symbol and humane woman, bearing fruit together with very impressive change shown in the attitude of 'Man of Darkness' (vampire)'s conscious ego and mutual relationship pattern. We contemplated this phenomenon, the reason why these events happen, and what kind of association presents among these events, individual, and this era and discussed the effects on individuals and this era, at present. 'Creative impulse', originated in the deep structure of human mind is realized as a 'transformation of individual personality' or masterpiece through artistic creation. If it has a chance to make a match with this era, shared by a lot of contemporary people, it also appears to bring positive effect as healing and salvation to each individual or to each era. From this article, we mainly highlighted positive and healing aspects of individual 'creative impulse'. We hope to deal with the negative consequences and their reason coming from 'creative impulse', if the occasion arises, in the future with a new article.

KEY WORDS : Creative impulse · Creative writing · Creative transformation of personality · Man of Darkness · Healing · Salvation.

*Jungian Analyst, Member of IAAP, Psychiatrist, Yongin Mental Hospital, Yongin, Korea

**Psychiatrist, Yongin Mental Hospital, Yongin, Korea

***Psychiatrist, Yongin Mental Hospital, Yongin, Korea